가든인 제2권2월 1회 발행 등록일 2013년 4월 22일 등록번호 경기 라 50312 ISSN 2288-1719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 T.031-712-7009 매월 20일 발행 권당가격 10,000원

월간 가든인 8월호

August 2015

# Gardenin

특집 기사

## 정원사의 일기 – 텃밭정원의 병해충 관리요령

GARDENIN LIFE 8 VOL. 28

### Gardenin Maintenance

허브정원과 허브 화환 만들기

다육식물 번식 시키기

충남 홍천군의 '홍성씨앗도서관'

### Gardenin Plants

꽃이 좋아, 향기가 좋아

무지개 정원- 코레우리

관목의 필수 조팝나무

### Gardenin Culture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정원과 발걸음 멈추어 쉼과 사색하며 새롭게

깨진 항아리로 DIY 정원

리아트리스 Liatris spicata Alba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조경가든대학 7기 소개

# CONTENTS

## Gardenin Maintenance

**4** 초록의 향 & 미각의 작은 허브정원과 허브 화환 만들기
작은 포트나 화분을 이용하여 베란다에 실내 장식과 향을 주며, 쉽게 종자로 누구든 기를 수 있는 초록색 허브의 성장이 활발한 여름철. 풍성히 자라는 허브를 이용하여 집안에 허브화환을 만들어 이용한 후 음식에 이용하여 미각에 풍미도 더하는 재미를 만나보자

**8** 8월의 정원관리
정원사가 발걸음을 하는 만큼 정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제공한다. 계속 꽃을 보고 싶다면 시든 꽃을 정리하여 따주기도 하고, 웃자라 쓰러지는 식물의 키도 다듬어 주며, 식물의 번식 방법을 그림으로 step by step 알려주는 코너

**12** 엽삽방식의 다육식물 번식 시키기 / 김세경
요즈음 실내 정원에서 각광받는 키우기 쉽고 관리가 용이한 다육이의 번식 방법을 마스터 하는 시간

**16** 정원사의 일기 / 김시용
RHS 출신의 정원사 김시용이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 채소정원의 정확한 병충해 설명과 이용방법을 놓치지 말자

**19** 커뮤니티정원 연재4 / 충남 홍천군의 '홍성씨앗도서관'
2015년 2월 홍성 씨앗 도서관의 개관을 통하여 농부들의 씨앗구입에 대한 많은 부담과 토종 씨앗의 보존에도 각 농가 지역마다 종자 보존의 운동이 활발하여지기를 기대한다.

## Gardenin Plants

**22** 정원 속 (Genus) 보이네
식물 전문가이자 세계 속에 품종개발자로 높이 평가 받는 박공영 박사의 식물 속 ( Genus)은 정원의 식물을 알고 정원 속의 식물 신비를 배워가는 코너

**26** Special Issue / 꽃이 좋아, 향기가 좋아
꽃과 함께 허브 향 & 화려한 색도 공급하는 정원 속 허브 향의 식물 종류를 아낌없이 소개하는 여름 특집. 어느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잎과 꽃의 모양과 향을 찾아보는 아주 유용한 특집으로 전문가의 소개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34** 무지개 정원- 코레우리(Coreopsis )가 여의나루에 수 놓다.
공공 정원은 대중의 관심과 올해는 혼성식재의 패턴을 계속 소개하는데 코너로 한가지 식물로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을 뛰어 넘어 무지개원의 대규모 정원을 여의도에 선보였다. 시공 방법과 장기 개화 식물의 가능성이 만들어낸 '우리꽃연구소'의 자랑이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자랑거리 ......

**38**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장식용 그리스의 정원식재는 이제 정원의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관리와 번식도 용이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다녀도 부담 없는 정원의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혼성식재의 선두주자로 올 한해 많은 인기를 유지하는 식재이고, 서봄이 정원을 걸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40** 관목시대의 필수 선택 Spiraea(조팝나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을 중심으로 이제는 관목시장의 주 패턴으로 등장한 조팝나무 군에 대해서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42** 꽃창포 / 이명호
꽃창포와 붓꽃의 구별 및 꽃창포 무리들의 다양성을 찾아보는 코너

## Gardenin Culture

**44** Summer Colour / 오도
자연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색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고 편안함을 주는 색 중에 하나가 갈색이 아닐까. 너무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갈색의 매력을 조용히 들여다 보자

**48** 알람브라 궁정정원 / 손관화
이슬람 양식의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왕국이 13~14c에 건설한 아름다운 궁전으로 유럽에 현존하는 아랍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궁전

**51**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V. 리듬 / 최지현
리듬이라 하면 음악에서 음의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음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미술계에서도 리듬은 선, 형, 색의 비슷한 반복을 통하여 이루는 통일된 율동감. 즉 농담, 명암 따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배열된 상태를 가리키나 정원에서의 리듬?

**54** 33톤의 물의 힘 / 가든인 편집실
Alnwick Water garden 안워 수경정원의 물의 양과 연출 방식에는 무엇이 표현되는가?

**56** 하와이 Kauai island Tracking / 정수조경 정수진
하와이 garden island라 명명하는 아름다운 섬의 트랙킹을 소개하며 정원의 섬에 속한 식물은 어느 것이 있는지?

**59** 한택식물원 / 김홍열
자연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연 '식물원·수목원' 을 만나다!

**62** 정원으로의 여행 6 / 서수현
이슬람 정원, 이탈리아 정원 & 프랑스정원의 정원스타일

**66**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우정아
산과 강이 만나고 하늘이 반기는 춘천의 정원을 찾아가다

**69** DIY 정원 / 우정아
깨어진 항아리를 아름답게 작은 정원으로의 탄생이 가능한가

**70** 와인 박스를 이용한 다육 모둠 심기 / 김세경
미니 다육 정원을 만들어 보는 코너로 실내디자이너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72** 리싸이클 미니정원 만들기
집안의 작은 폐품을 식물과 응용하면 작은 정원이 탄생한다. 작은 소품을 최대한 이용하여 정원의 공간을 …

**74** 정원과 발걸음 멈추어 쉼과 사색하며 새롭게
경기 양평의 정원사 최성주의 정원과의 동행에서 발견하는 디자인 포인트를 하나씩 집어보며…

## Gardenin Information

**80** 도서소개 / 마음을 가꾸는 정원

**81** 조경가든대학 7기 / 2015년 하반기 조경대학 코스 소개

Gardenin
GardenIn 월간 8월호

# 초록의 향 & 미각의 허브정원

실내정원에서도 포트로 허브 정원을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으며, 여름철 허브향으로 맛난 미각이 뛰어난 요리도 공급을 한다면 최고의 키친가든이라 할 수 있다.

로즈마리

라벤나

민트

타임, 백리향

허브는 초보자에게도 종자 파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이며, 여름철 여러 번 종자 파종이 가능하며 누구든 쉽게 실내.외 정원을 이용하는 특권이 있다.





## 여름철 정원 공간 – 작은 허브 정원 식재 디자인 방법

팬지 , 근대 , 케일

메리골드. 파세리 , 토마토

패랭이 , 오리가노, 은쑥, 케일

메리골드, 민트, 파세리, 케일

# 허브화환 만들기

## 무더위 여름철 허브 향 화환 wreath을 실내로

신선한 허브의 화환은 실내에 장식한다면 가장 강한 여름철의 향을 공급하는 장식물이 될 수 있다. 실내정원이나 베란다 정원에서 웃자라거나 성장이 좋은 허브를 이용하여 싱그러운 여름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작은 정원의 행복 안에서 가족과 집안의 공기가 품격을 높여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허브 향의 전달은 집안이나 실내 어느 곳이든 정원의 효능성을 아주 크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며 장식이 마른 후에는 냉장고에 잘 보관하여 부엌에서 요리를 만드는데 이용도도 매우크다.

**허브 화환 준비물** : 14 인치 포도 덩굴 화환, 신선한 허브, 그린 와이어, 고무 밴드, 가위 및 베이잎 대신 동백잎등등 잎의 크기가 있는 나뭇잎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화환의 이용법은 언제든지 같은 재료 중 메인 재료만 바꾸면 집안의 장식물이나 선물용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른 허브 화환은 부엌에서 요리에 이용하는 효과도 크다

로즈마리, 라벤더, 백리향과 세이지는 잎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묶어 준비한다. 아름다운 열과 모양의 허브라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몇 시간 만에도 시드는 바질, 파세리, 민트 같은 부드러운 허브 종류는 화환용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허브 큰 묶음을 정리하여 이를 혼합 하는 대신에 각각의 허브를 조금씩 한 묶음으로 만들어 고무 밴드로 나누어 묶는다. 훨씬 쉽게 정리 할 수 있으며, 작은 허브의 여러 묶음을 준비를 한다.

그린 와이어를 약 12 인치를 잘라내어 허브 지점을 통해 사이사이로 와이어를 두어서, 허브 화 환 재단에 연결 된 경우 완벽히 붙어지도록 묶어지며, 단단히 고정된다.

포도 덩굴 화환 재단에 작은 묶음 들을 놓고 만나는 뒷면에서 와이어 끝을 비틀 뒤로 마무리한다.

화환에 허브를 연결하는 경우 와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하단에 고무 밴드를 명확하게 묶어야 한다. 고무 밴드를 숨기려면 묶음을 한묶음씩 추가할 때 각각 고무밴드를 이어서 숨긴다.

화환용 장식도 여러가지 허브의 질감을 배열하여 시각적 효과로 디자인을 나누도록 하자. 예를 들어 로즈마리의 긴가지 + 베이 잎 + 짧고 잎이 많은 백리향 등등의 순서로 입체감 있게 배열한다.

신선한 베이 잎 허브 화환에 대해 디자인을 만들어 주므로 화환을 엮기 전에 준비 해야 한다. 와이어를 약 12 인치를 잘라내어 U자 형안에 엮어 위의 사진처럼 만들어 느슨하게 엮어준다.

베이 잎 같은 잎사귀는 허브 묶음이 모양을 바꾸어가며 잎과 꽃의 배열처럼 자연스럽게 배열하여 묶어준다.

화환의 앞에 모든 허브를 배열하여 정리하고 뒷면 후 정리는 여러가지 문이나 벽에 흠이 가지 않도록 철사나 나무등을 정리한다.

화환의 중앙 뒷면에 걸이 부분을 준비하여 벽걸이 끈을 단단한 가지에 준비한다.

Gardenin 정원사의

# 8월의 정원관리

8월은 일년에서 가장 더운 달이며,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건조한 여름이 왔을 때, 재활용 빗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어야 한다. 8월은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으므로 집을 비웠을 때 정원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게 주위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둘 수 있으면 좋다. 또한 집에서 여름에 꽃이 피는 회양목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시기 이다

## 꽃

### 씨뿌리기와 심기

8월 말 까지 내한성 1년생 식물을 화단 가장자리에 파종을 하면, 겨울을 나고 내년 여름에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 No. | 리스트 | 여름 6 | 7 | 8 |
|---|---|---|---|---|
| 01 | 관목 & 덤불정리 | ■ | ■ | ■ |
| 02 | 농사짓기(재소과일초자발이) | ■ | | |
| 03 | 퇴비주기 | | ■ | ■ |
| 04 | 화단관리 | | ■ | ■ |
| 05 | 원예 업무 | | ■ | ■ |
| 06 | 정원 도구(수리·유지·보수) | | ■ | ■ |
| 07 | 접붙이기 | | ■ | ■ |
| 08 | 조경 경관 디자인 | | ■ | ■ |
| 09 | 풀 베기(잡초제거) | ■ | ■ | ■ |
| 12 | 토양 분석 및 관리 | ■ | ■ | ■ |
| 13 | 관수 시설 설치 및 유지 | ■ | ■ | ■ |
| 14 |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 ■ | ■ | ■ |
| 15 | 관수 공급 | ■ | ■ | ■ |
| 20 |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 ■ | ■ | ■ |
| 21 | 총괄 관리 감독 | ■ | ■ | ■ |
| 22 | 작업전 후 사진정리 | ■ | ■ | ■ |
| 23 |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 ■ | ■ | ■ |

### 이달의 정원 관리 작업 리스트

- ☐ 1. 등나무(Wisteria)의 가지치기를 한다.
- ☐ 2. 여름에 꼭 해야 될 과일나무의 가지치기를 미루면 안 된다.
- ☐ 3. 시든 꽃을 주기적으로 잘라 내야 한다.
- ☐ 4. 물을 주어야 한다. 특히 화분이나 새로 심은 식물에게 재활용 빗물을 사용한다.
- ☐ 5. 원하는 식물의 종자를 수집한다.
- ☐ 6. 옥수수나 다른 야채식물이 다 자라면 수확을 한다.
- ☐ 7. 산딸기(raspberries)의 오래 된 가지를 잘라 준다.
- ☐ 8. 화단의 런너형 딸기를 뽑아서 화분으로 분화를 한다.
- ☐ 9. 연못과 인공 폭포의 물을 채워준다.
- ☐ 10. 토양에 녹색 비료를 섞어 준다





### 가지치기와 뿌리나누기

금낭화(*Dicentra*)같은 초본 식물의 잎과 가지가 죽으면 잘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행잉 바스켓으로 키우는 식물에게 물과 양분을 주고 시든 꽃을 따주는 것을 잊지 말고 해주어야 가을까지 살아 남을 수 있다. 다알리아(*Dahlia*)나 장미(*roses*) 그리고 펜스테몬(*Penstemon*) 같은 식물이나 지표식물의 시든 꽃을 따주면, 초 가을까지 색상을 연장해서 볼 수 있다. 장식용 그라스의 꽃을 자르지 말아야 겨울에도 좋은 경관을 연출 할 수 있다. 내한성 제라늄(*geraniums*)의 시든 잎의 가지만 살짝 쳐서 새로운 가지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준다. 덩굴 장미의 개화가 끝나 새로운 꽃이 피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해서 멋진 모양을 유지 할 수 있게 한다.

### 증식

석죽(*Pinks*)과 카네이션(*carnations*)은 휘묻이로 증식이 가능하며, 붓꽃(*irises*)의 근경을 나누어 증식을 지난달에 안 했으면, 증식을 해준다. 다년생 화초의 꽃이 지면 뿌리나누기로 증식을 하는데, 흐린 날이나 비가오기 전에 해주어서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한다. 제라늄(*Pelargonium*)과 오스테오스펠멈(*Osteospermum*)같은 부드러운 다년생의 삽수를 바로 따서, 시원하고 그늘진 실내나 처마 밑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 락가든용 식물인 힐리앤써멈(*Helianthemum*)이나 아우브리에타(*Aubrieta*) 그리고 패랭이(*Dianthus*)등의 삽수를 따서 지금 증식을 해줄 수도 있다.

### 일반관리

화분과 화단의 다년생 초본 식물에 액상 비료를 매주 주어서 이른 가을에 꽃이 필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시든 꽃을 따주어서 새로운 꽃 눈이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준다. 맨 땅에서 자라난 고산식물의 줄기가 시들거나 잡초처럼 보이게 되면, 모래성분의 비료를 깔아주어서 잘 자라고 모양이 재대로 형성 될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다년생 잡초가 이시기에 활발히 성장을 하므로 잡초제거제를 사용하여 잡초를 자주 제거해주어야 한다.

### 미리 준비하기

금잔화(*Calendula*), 니젤라(*Nigella*), 셀린쓰(*Cerinthe*), 양귀비(*Papaver*), 매발톱(*Aquilegia*), 제라늄(*Geranium*)등의 내한성 1년성 화초의 씨앗을 수집하여 가을에 파종을 할 수 있게 하고, 봄에 피는 구근을 구입 한다. 지금 심을 수 있는 구근은 콜키쿰(*Colchicum*), 수선화(*daffodils*), 흰백합(*Madonna lilies*) 등이 있다.

### 해충과 질병 검사

국화과(*chrysanthemums*) 식물에 흰녹병(*white rust*)의 징조가 보이는지 확인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다. 꽃담배(*Nicotiana*)의 잎의 윗면에 노란색 얼룩이 보이면 노균병(*downy mildew*)을 의심해야 하고 바로 뽑아버려야 한다. 흰가루병(*Powdery mildew*)도 이시기에 널리 퍼지는 질병으로 제조사가 권장하는 양 만큼만 뿌려줘야 하며, 집젭벌레는 달리아의 꽃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집게벌레 퇴치용 틀을 사용하여 잡아주면 된다. 꽃이 망가지고 잎의 색이 바랬다면 선충이나 애벌래의 피해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주변에 어떤 종류의 선충이 서식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맞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부자련한 정원사 발걸음이 건강한 정원을 만들어 간다. 퇴촌 , 귀여리 정원

## 수목과 관목

### 가지치기와 뿌리나누기

등나무(*wisteria*)와 피라칸다(*Pyracantha*)의 꽃이 지면 가지치기를 하고, 헤베스(*Hebes*)와 라벤다(*lavenders*)는 꽃이 진 후 가지치기를 살짝 해 주어야 한다. 덩굴 장미의 가지치기는 꽃이 진 후 지금 해주는 것이 좋고, 회양목의 가지치기 또한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면, 추워지기 전까지 조금 자라다가 성장이 멈출 것 이다. 큰 수목과 관목의 굴치 작업은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며, 남은 잔가지는 썩어서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피라칸다(*Pyracantha*)

라일락 가지치기

### 일반관리

계속해서 장미 같은 관목의 시들은 꽃을 따주어서 이른 가을까지 개화가 진행 될 수 있게 하며, 잎이 진 가지를 가지치기 하여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게 한다. 새로 옮겨 심은 식물은 물을 많이 주어서 기초를 잡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동백나무(*Camellia*)나 진달래(*Rhododendron*) 처럼 꽃이 빨리 지는 관목들도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증식

삽수는 일반적인 정원 관목인 박스(box), 갈매나무(*Ceanothus*), 라벤더(*lavender*)등에 많이 쓰이는 증식 방법이며, 휘묻이는 진달래(*Rhododendrons*), 철쭉(*azaleas*), 클레머티스(*Clematis*) 등에 쓰이는 증식 방법이다.

### 질병 및 해충 관찰

바구미는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왕성히 활동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직접 잡아서 없애는 방법이 좋으며, 유충은 곧 부화하기 시작 할 것이다. 땅의 온도는 선충에게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특히 진달래(*Rhododendron*), 동백나무(*Camellia*), 후시아(*fuchsias*) 등의 식물을 잘 보호해야 한다. 장미에 생기는 검은 반점도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떨어진 잎을 모아서 태워버리는 게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흰가루병은 건조한 곳에서 발견 될 수 있다.

### 잔디

잔디깍기의 칼날을 높여 잔디를 깎아주면, 수분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살짝 자주 깍아주는 것은 잔디재가 더운 여름 기간 동안 수분 유지 및 멀칭 효과를 줄 수 있다. 많이 자란 짚을 모아두면 다음 달 가을 정원 관리 때 요긴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잔디 재를 더 가늘게 깍아주면 모양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잔디의 토양층이 얇으면 인산이 많이 배합된 비료를 사용하면 겨울에 뿌리를 강하게 할 수 있으며, 잔디를 빽빽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늦은 여름에는 잔디에 제초제를 안 사용 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제초제는 춥거나 건조한 가을 날씨에 더 잘 작용된다. 금년 나중에 잔디를 깔려는 자리는 미리 흙을 뒤집어 놓고 1~2주 정도 나두면 잡초가 와서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뽑아서 없앤 후 가을에 잔디판을 깔아 주면 된다.

### 문제 해결

건조한 날씨에서 잔디가 노랗게 마르는 것은 일반 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가오면 바로 해결이 가능 한다. 비가 너무 안온다면 물을 주면 해결 할 수 있다. 잔디가 노랗게 마른 곳은 이번 가을에 땅을 골라 통풍과 배수가 잘 되게 하면 내년에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공공장소의 잔디에서 나타나는 노랗게 마르는 증상은 주로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휘발유나 기름 유출 또는 잡초제거제나 비료의 과용 등에 의해서 발생 될 수 있다.

삼색나무의 여름잎새모습

## 번식 Propagation

줄기를 잘라서 물에 담가둔다

자른 앞줄기를 정리하지 않고 다 심으면 번식이 나누어져 성공율이 낮다.

심기전의 정리된 삽수의 모양

심는 줄기 부분은 상처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끝부분을 정리하여준다. 이렇게 심으면 뿌리가 나올것이다.

포트라면 크기에 따라 5개 정도의 식물을 심으면 된다

푸른 새잎이 나오기 전까지는 햇빛을 보지 않도록 창문 밑 그늘 가에 둔다. 그리고 일반적 온도가 유지되도록 구멍을 뚫어주며 사진처럼 비닐 봉지로 싸주도록 한다.

번식이 되어 포트나 화단에 심으면 된다.

# 엽삽 방식의 다육 식물 번식시키기

– 자른 가지와 잎들로부터 새로운 다육 식물을 번식시키는 법

실내.외 정원이나 작은 공간의 장소에서 작은 식물인 다육을 키워가며 식물의 번식을 배운다면 정원의 욕구를 이어갈 수 있다. 햇빛이 많이 드는 밝은 창가에서 다육 식물을 키우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줄기만 길어지기 십상이다. 충분한 양의 빛을 받지 못해 웃자라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잎들 간의 간격이 넓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아래에 엽삽방식의 번식을 그림과 함께 배워보자.

식물이 웃자람을 보이기 시작해도 겁내지 말자. 왜냐하면 식물을 번식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글. 정리 / [마케다의 정원] 김세경





## 다육이 번식 마스터하기

### Gardenin Tip

**번식방법** – 종자번식(유성) 과 영양번식(무성)
**영양번식** – 엽삽:식물의 잎을 잘라 삽목하는 방법
줄기삽:부드러운 가지를 7~12cm (3~4마디) 잘라서 삽목하여 발근하는방법
**삽목방법**
– 삽수는 2~4매의 엽을 붙여 7~12㎝ 정도의 길이로 비스듬히 잘라 용토에 꽂는다.
– 용토 : 모래, 질석, 펄라이트
– 꽂을때는 삽수의 1/3정도가 묻히도록 15도 각도로 비스듬이 꽂는다.
– 습도 : 공중습도가 80~90% 정도 되도록 해준다.
– 삽목 후 관리 : 삽목후 4~5일간은 해가림을 해주고 1일 3회 정도 잎이 시들지 않게 분무하는 것이 좋다.

다육 식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직 아름답지만 아래 잎들은 시들기 시작하며, 머지않아 외관은 길게 벋은 앙상한 줄기 위에 남은 장미 모양의 형태의 잎이 지기 전 잎을 따내어 번식이 용이하다.

먼저 아래쪽 잎부터 따내며 잎을 줄기로부터 떼어낼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잎을 단단히 잡고 톡 부러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양쪽으로 흔들어야 하며, 잎 전체가 깔끔히 떼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줄기와 연결되는 기저 부분이 아직 줄기에 남아 있는 상태로 잎이 찢어진다면 뿌리를 내릴 수도, 새로운 포기가 자라날 수도 없게 된다.(엽삽방식) 다육식물은 줄기와 잎 사이에 생장점이 있어 떼어낸 잎에서도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오게 된다.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적절하게 줄기로부터 분리되고,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작은 장미 모양의 봉오리가 달린 긴 맨 줄기만 남게 된다.

공예용 가위를 사용해도 되지만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앞에 여러 개의 다육 잎들과 밑동, 그리고 짧은 줄기의 귀여운 다육 식물 한 포기가 있다.

### 주요 point

기다림. 새로운 식물들을 길러내기 위해 잎을 흙 위에 올려놓기 전에 잎 끝이 마르고 굳도록 두어야 한다. 이 단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만약 잎 끝이 마르도록 두지 않고 곧바로 흙에 올려놓으면 잎은 너무 많은 습기를 흡수하게 되고 결국 썩어서 죽게 될 것이다. 잎들뿐만 아니라 줄기 또한 끝이 마르도록 두어야 한다. 끝이 마르는 데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끝 부분이 충분히 말랐다는 느낌이 들면 배수가 잘되는 선인장 및 다육 전용 흙 위에 올려놓아도 된다. (어떤 이들은 잎과 줄기 끝을 발근 호르몬제에 담그기도 한다. 나는 호르몬제를 사용해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높은 성공률을 거두어왔다.) 경험에 의하면 잎을 간접광이 많이 드는 실내 창가에 두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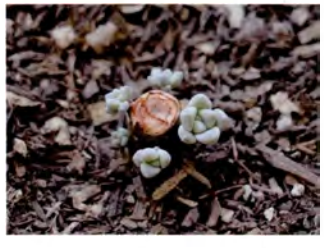
몇 주가 지나면 잎 끝 부분으로부터 분홍빛 뿌리들이 자라 나오게 되고 다음엔 아주 아주 작은 어린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뿌리들이나 어린 식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거의 물을 주지 않는다.

일단 뿌리와 어린식물들이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쯤, 혹은 흙이 완전히 말라있는 것 같을 때 물을 흠뻑 준다. 완전히 성장한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약 과습이 걱정된다면 물을 흠뻑 주는 것 대신 하루에 한 번 씩 잎 끝 부분에 물을 스프레이 해주기를 권한다.

난 '모체'가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 확연해질 때까지 다육이 어린식물들을 이렇게 줄지어 키운다. 모체가 시들면 처음에 잎을 줄기로부터 떼어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모체를 제거하고 아기 다육이를 별도의 화분으로 옮긴다. 이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모체를 떼어낼 때 실수로 뿌리까지 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모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모든 잎이 새로운 식물로 번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잎들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어떤 잎들은 뿌리는 내리지만 끝까지 어린 다육이를 번식시키지 못하며, 어떤 것은 심지어 아기 다육이가 번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몇 건의 실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잎들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식물들을 번식시킬 것이다. 아래 사진에 있는 세 개의 잎들은 모두 같은 날에 줄기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린 식물들에게 나눠 줄 화분이 많지 않아 시든 잎들을 제거하고 마치 다육 숲처럼 어린 다육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였다.

단지 밑동이 남겨진 화분을 한쪽에 내버려 두기만 해도 잎을 떼어냈던 부분에서마다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날 것이다.



이 모든 작업들을 해야만 했던 원인인 바로 그 줄기 말이다. 줄기 끝이 마르고 굳으면 배수가 잘 되는 선인장 및 다육 식물 전용 흙에 심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고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다육 번식은 정말 근사한 일이다.

모든 정보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다육 식물들은 다른 식으로 번식하고, 다른 기후와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다른 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방법이 나에게는 효과가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효과적인 방법이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원본 글: Tawni Daigle 인스타그램 blog / 다육식물 월별 관리법 http://myter.tistory.com/192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번식방법 http://www.yatc.or.kr/info/children/flower2.htm

◆ 아름다운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디든지 식재가 가능한 전천후입니다.
◆ 우리꽃은 **다양한 추식구근**을 공급합니다.

| 품목 | 단가/(원) | 식재수/㎡ | 비고 |
|---|---|---|---|
| 튤립(일반) | 320~350 | 30~50 | |
| 튤립(스페셜) | 500~600 | 30~50 | |
| 수선화 | 600 | 30~50 | |
| 크로커스 | 400 | 80~100 | |
| 알리움기간티움 | 3,000 | 9~16 | |
| 무스카리(보라) | 300 | 80~100 | |
| 무스카리(하양) | 500 | 80~100 | |
| 무스카리(분홍) | 800 | 80~100 | 1,000개 한정판매 |
| 무스카리(노랑) | 800 | 40~50 | 1,000개 한정판매 |
| 히야신소이데스 | 500 | 80~100 | |
| 아네모네블란다 | 500 | 80~100 | |

디자인 및 식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회사인 우리꽃에게 문의하십시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우리꽃영농조합법인 URISEED COMPANY
T. 031-634-7990 F. 031-634-799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 텃밭정원의 병해충 관리요령

텃밭정원에는 1년 내내 벌과 나비 그리고 다양한 벌레들이 모여든다. 벌과 나비는 꽃가루를 옮겨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관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꽃과 채소, 허브가 어우러진 텃밭정원에는 해충의 피해가 적지만, 가끔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어느 틈에 둥지를 틀었는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텃밭정원을 장악해 버린다.

### 1. 배추흰나비

주로 십자화과(Cruciferae) 채소(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에 생긴다. 잎 위에 호리병 모양의 하얀색 알을 낳는데, 알의 크기는 약 1mm 정도로 작다. 중부지방에서는 5~6월 경에 생기며, 불규칙한 구멍을 내면서 잎을 갉아먹는다.
유기재배를 할 경우, 알을 발견했을 때 날카로운 면을 가진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낸다. 일찍 발견하지 못해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 움직이면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모종이 어릴 때 햇빛이 투과되는 한냉사(寒冷絲) 같은 망을 씌워 주는 것이다. 십자화과 채소들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다. 그때까지 관리만 게을리 하지 않으면 잎을 갉아먹는 벌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2. 비단노린재

이른 봄에 십자화과 채소(브로콜리, 뉴비타)에 모여들어, 잎이나 줄기에 주둥이를 꽂아 양액을 빨아 먹는다. 잎에 양액이 빨린 자리는 창백한 색깔이 나는데, 심한 곳은 말라 죽는다.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1년에 2~3세대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6~7월에 신성충이 나타나며 성충의 길이는 약 8~9mm가 된다.
비단노린재는 등이 검어 쉽게 눈에 띄는 장점이 있지만, 어린 애벌레일 때부터 움직임이 빨라 손으로 잡아주기가 힘들다. 손으로 잡기보다는 채소모종이 어릴 때 촘촘한 망(한냉사)을 씌워 준다. 노린재가 싫어하는 향을 풍기는 허브를 심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왕무당벌레붙이

진딧물을 잡아먹는 칠성무당벌레와는 몸의 생김새나 색깔에 차이가 있다. 등 표면에는 하얀 솜털이 난 것 같은 뿌연 느낌이 나며, 점 모양도 불규칙하고 많다. 겨울을 성충으로 지내며 5월부터 밖으로 나와 감자(*Solanum tuberosum*)나 가지(*Solanum melonge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의 잎 뒷면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채소의 잎살을 표피만 남기고 먹어 버린다. 24점무당벌레는 날개가 있어 일일이 손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지과(*Solanaceae*) 채소의 잎 뒷면을 유심히 관찰하고 알을 긁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 4. 녹병

유난히 대파에 많이 생기는 녹병은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다. 5월 하순부터 생기기 시작하다가 6월 하순~7월 초순 장마 뒤에 빠르게 번진다. 주로 단단한 땅에서 물빠짐이 나쁘거나, 몇 년 동안 이어짓기 하는 경우, 깊이 심어 아랫부분의 줄기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경우, 석회나 퇴비 양이 적은 경우, 병든 포기를 내버려두었을 때 많이 생긴다.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거나, 배수 관리에 유의하여 2~3년간 돌려짓기한다. 퇴비나 석회를 적당량 뿌려 토양을 개량하고, 질소질 거름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탄저병

고추(*Capsicum annuum*)와 토마토, 피망 재배에서 피해갈 수 없는 탄저병은 29℃ 이상에서 습도가 높을 때 급격하게 생긴다. 열매에 작은 반점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다가 병든 부위가 움푹 패이고 둥근 겹무늬가 나타난다.
건강한 씨앗을 선택 재배하고, 생육 초기에 질소 양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줄기가 단단하게 자라도록 한다.

### 6. 좁은가슴잎벌레

무잎벌레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좁은가슴잎벌레는 애벌레와 성충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어른들은 애벌레를 보고 돼지벌레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이지 돼지처럼 무, 배추 등의 십자화
과 채소 잎을 사정없이 먹어 버린다.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몸을 똘똘 말아 땅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핀셋 같은 도구를 쓰는 것이 좋다. 활동하는 시기도 이른 아침이라서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햇살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주로 뿌리 근처의 땅속으로 숨어 버린다. 한 번에 다 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침마다 텃밭정원으로 출근하는 게 낫다. 좀 귀찮기는 해도 날마다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더 크다.

### 7. 벼룩잎벌레

무벼룩잎벌레라고도 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Raphanus sativus*)잎이나 무와 같은 과인 십자화과의 어린 채소 잎을 갉아 먹는다. 성충의 크기는 2~3mm로 아주 작으며, 놀라면 벼룩처럼 튀어 올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잎에 작고 동그란 구멍을 낸다. 벼룩잎벌레의 피해는 6~7월 비가 적을 때 통기가 잘 되지 않는 흙일 경우와 이어짓기할 때 커진다. 성충으로 낙엽 아래나 식물 포기, 흙 사이에서 겨울을 나며, 이른 봄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 1년에 3~5회 발생을 반복한다. 알은 채소 포기 가까이 얕은 흙속에 낳으며, 8월쯤 밀도가 최고로 되어 9월 이후는 월동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가 갑자기 줄어든다.

### 8. 오이잎벌레

오이잎벌레는 낙엽 아래 등 약간 습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4월쯤부터 밖으로 나와 박과 채소가 보이기 시작하면 옮겨가서 동그란 모양을 남기면서 갉아먹는다.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포기 가까이 흙속에 알을 낳는다. 애벌레, 번데기 기간을 흙속에서 지낸 후 7~8월까지 새로운 성충이 발생한다. 그때 쯤 오이에 집단으로 옮겨가 잎만 아니라, 열매를 갉아 먹어서 심한 손해를 본다. 10월쯤이 되면 건물의 남쪽, 나무 등 따뜻한 장소에서 한 달 정도 조금씩 이동하다가 추위가 심해지면 모습을 감춘다.

### 9. 거세미나방류

거세미나방의 애벌레다. 커진 애벌레는 낮에는 흙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한다. 먹고 난 뒤 식물의 줄기 일부를 잘라서 흙속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작은 애벌레는 잎을 갉아먹기만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 1년에 3~4회 발생하는데, 5월~9월에 많이 볼 수 있다. 도둑나방이나 담배거세미나방과 달리, 알은 한두 개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찾을 수 있다.

### 10. 차먼지응애(가지)

이 벌레는 워낙 작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지의 껍질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부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년 조금씩 발생하지만 가지를 못 먹을 만큼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자신이 길러 먹으려는 텃밭에서는 보기 심하게 피해를 입은 가지는 버린다. 웬만큼 피해를 입은 가지는 도려내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 11. 배꼽썩음병(토마토)

배꼽썩음병은 과일에만 생긴다. 사진과 같이 꽃이 진 배꼽 부분에 흑갈색이 좀 들어간 병반이 생기고, 과일은 납작하게 된다. 병반이 생긴 면에 검은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은 병원균이 아니고 잡균이다. 배꼽썩음병은 칼슘 결핍이 원인인데, 땅의 습도 변화가 심한 경우, 질소 비료를 너무 주었을 때, 산성토양이나 점토질이나 모래흙이 많은 밭에 생긴다. 짚을 깔아주고 물주기 등으로 토양의 조건을 좋게 하고, 많이 생기는 지역에는 염화석회액을 잎에 뿌리면 효과가 있다.

### 12. 노균병(오이)

오이의 노균병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병이다. 잎에 옅은 황색의 희미한 반점이 생기며, 습도가 높을 때에는 그 안쪽에 회색 곰팡이가 생긴다. 반점은 잎맥을 경계로 다각형이 되는 특징이 있다.

비가 많이 올 때 생기기 때문에 짚을 깔아주는 게 좋다. 하우스에서 기를 때에는 환기를 잘 해주어야 한다. 또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 연재 4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다양한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주가 필요하다(홍성씨앗도서관 채종포)

# 씨앗과 교육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 (홍성씨앗도서관)

2015년 2월 28일 마을사람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홍성씨앗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씨앗도서관이란 말이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친숙하게 다가 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하면 책을 보러 가거나, 책을 빌리러 가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빌려주고 1년 후에 농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다시 빌려간 만큼의 씨앗을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마을에서 씨앗도서관을 고민하게 된 동기는 건강한 씨앗을 뿌려서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 채소를 먹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 종묘회에서 구입하는 씨앗은 씨앗의 색깔부터가 다르다.

새해에 가장 먼저 씨앗을 침종하고, 씨앗을 뿌려 모종을 키우는 채소가 고추라고 하면, 완두콩과 감자는 새해에 가장 먼저 텃밭에 씨앗으로 심는 채소다.

씨앗도서관 내부

홍성씨앗도서관에서 하는 일들

완두콩을 심기위해 꽁꽁언 땅을 뒤짚고, 두둑을 만든 다음 씨앗을 손에 덜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늘상 먹어오던 초록색이 아니라 너무나 생소한 분홍빛이 들어간 주황색의 덩어리들이다. 손에 물기나 땀이라도 나 있으면 손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버린다. 주황색의 정체는 바로 살충제. 종묘상에서 판매하는 씨앗에는 살충제를 뿌린다고 한다. 불량한 씨앗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씨앗을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씨앗은 식물체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최고의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벌레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씨앗이 곧 돈이 된 사회에서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한다.

최근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뿌리기에 불편한 씨앗들을 코팅을 해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파란색, 분홍색 등 염색액과 살충제로 버무려 원래 씨앗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둔갑시키기도 한다. 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하기 편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살충제와 염색액으로 처리된 씨앗이 좋을 리는 없다. 게다가 종묘 기업들은 F1씨앗을 만들어내서 씨앗을 더 이상 받아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씨앗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해가 갈수록 씨앗 값은 높아지고 종묘상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최근 씨앗에 대한 또 하나의 두려움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조작 생물체) 종자에 대한 유해성이다. GMO종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쥐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양파 씨앗을 받기 위해 온실에 양파구근을 심는 모습

씨앗을 받기 위해 유기농으로 재배중인 채종포 한켠에 심어진 한련화. 한련화는 진딧물 예방에 좋다(홍성씨앗도서관 채종포)

씨앗 분류카드와 보관을 위해 병에 넣어 둔 씨앗들

흰색의 당근꽃. 꽃이 너무 예뻐서 채종포 전체가 환해진다 (홍성씨앗도서관 채종포)

유전자가 다른 종에 들어가서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의 일부가 기형이 되거나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홍성씨앗도서관은 살충제로 버무려진 씨앗과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GMO종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 그 첫 걸음으로 마을에 씨앗도서관을 만들었으며,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소를 키우고, 씨앗을 받는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씨앗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씨앗도서관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씨앗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계절마다 '채종워크숍'을 열어, 채소별로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과 씨앗 받는 시기를 마을 주민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박 두둑에는 토양개량에도 좋고 뿌리혹선충을 예방 해 주는 금잔화를 심었다. 키가 크게 올라와 줄을 띄워준 것은 상추. 그 위로는 잎이 넓은 즈끼니를 심었다(홍성씨앗도서관 채종포)

이런 다양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이 씨앗도서관 옆에 운영되고 있는 '채종포'이다. 100평정도의 채종포에서는 60여종류의 다양한 씨앗들이 심겨지고, 씨앗을 받으며, 마을사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의 형태를 갖춘 커뮤니티 가든이다. 씨앗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씨앗정원'인 것이다.

홍성씨앗 도서관 http://hsseed.dothome.co.kr/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들여다보기
정원 '속' Genus
보이네
박공영 회장 우리씨드그룹 / 이학박사

cymbidium

# 심비디움 속(Genus Cymbidium)

심비디움 속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우리생활에 이미 깊숙이 파고 들었다. 우리는 보통 양난이라 부른다. 주로 선물용으로 승진이나 축하의 화분식물로 많이 이용된다. 상록성 착생을 하며 암석에 붙어 살거나 나무 등에 착생하는 난으로 50여 종의 속으로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의 온대 열대지역에 있다. 이들은 구형에서 난형의 가짜 구근을 지니고 있으며 좁은 계란형에서 선형의 잎을 지니고 있다. 꽃은 주로 봄에 밑부분에서 긴 꽃대를 내고 아래서부터 꽃을 피우는 총상 꽃차례를 이룬다. 겨울에 꽃이 피거나 봄에 꽃이 피는 교배종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품종이 만들어져 왔고 인기가 많은 큰 속의 식물이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실외용 화초로써 혹은 서늘하거나 따뜻한 온실에서 기르고 이들은 실내에서도 많이 기르고 좀 어두운 집 실내에서도 자랄 수 있다. 잎과의 접촉은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산세베리아 등보다 음이온 발생이 많고 공기 정화효과가 있어 더욱 인기가 높다.

내한성은 국내에서는 없으며 반드시 온실 혹은 실내에서 길러야 한다.
재배는 주로 서늘한 곳에서 기른다. 착생을 하거나 일반 토양에 사는 심비디움은 화산석과 골분 비료가 들어간 화분에 견고하게 심는다. 여름에 밝은 발 등을 통과한 광아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물을 적당히 주고 3회의 물 주기를 고려하고 이때 비료를 주고 하루에 한 두 번 스프레이 한다. 겨울에는 밝은 빛이 있는 곳에 놓고 물을 적게 준다. 증식은 이른 봄이나 봄 중순에 화분 전체에 뿌리가 벋어 자랄 수 없거나 일부 노후화된 뿌리가 검게 될 때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붉은 거미, 진딧물, 벚나무깍지벌레, 그리고 흰가루병 등이 문제가 된다.

cymbidium

cymbidium

original cymbidium-orchid

Cynoglossum

# 물망초 속(Genus Cynoglossum)

물망초는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하나의 식물이다. 특히 봄에 피는 작은 물망초 무리는 우리를 들뜨게 한다. 주로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수명이 짧은 다년생 등 55여 종의 속으로 온대지역과 열대 고지대의 풀이 있는 지역에 있다. 잎이 어긋나고 가느다란 창형 모양에서 타원형 혹은 난형의 거친 잎이 있으며 간혹 덩굴 등에 휘감기거나 밑부분에 퍼져 있다. 이들은 푸른색, 가끔 보라색, 장미 분홍색, 혹은 흰색의 물망초와 비슷한 꽃을 위해 길러지며, 각각은 작고 관형의 꽃 부리와 5개의 넓게 퍼진 꽃잎이 총상꽃차례로 줄기 끝에 나란히 나며, 봄부터 가을까지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 혼합된 혹은 초본 혹은 일년생 식물의 화단에 기른다.

내한성은 반 내한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재배는 적절히 비옥하고 축축하나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 좋고 밝은 태양아래 혹은 약간의 그늘진 곳에 기른다. 꽃은 너무 비옥한 곳에서는 조잡해지고 잎이 많아지며, 꽃이 잘 안 핀다. 밀도가 높은 진흙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증식은 주로 다년생의 경우 종자를 냉상이 된 곳에 가을 혹은 봄에 파종을 한다. 일년생 그리고 이년생 종자를 원 자리에 봄 중순에 파종을 한다. 봄에 다년생 식물을 분주한다. 해충 및 질병은 흰곰팡이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Cynoglossum

Cynoglossum

Cynoglossum

Cyperus diffusus

cyperus alternifolius

kamiga

shugay

shugay

# 방동사니 속(Genus Cyperus)

방동사니속은 사초 혹은 화본과와 같은 모양으로 일년생 식물 혹은 상록성, 지하경을 갖는 다년생 식물 등 500~600여종의 속으로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의 전역에 걸쳐나고 소수의 온대지방에서 자란다. 대부분의 축축한 습지와 연못에서 이들의 잎과 독특한 꽃을 위해 길러진다. 줄기 끝부분에 두개의 성을 모두 지닌 꽃의 가느다란 화경은 일반적으로 우산과 같은 형태이다. 습지 화단이나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서리가 내리는 지방에서는 따뜻한 온실이나 재배실 혹은 실내 연못에서 기른다. 보통 서리에 약하고 내한성을 가지지 못한다.

재배는 온실에서 차광된 밝은 광에서 기른다. 물이 약간 있는 화분에 충분한 양분이 습기와 항상 높은 습기를 유지시킨다. 여름에는 달마다 영양분이 균형 잡힌 비료를 준다. 실내 연못에서 가장 자리 식물로 기르려면 물이 약간 있는 통이나 논흙 토양이 있는 화분에 2.5cm높이의 자갈로 윗부분을 덮어준다. 연못의 가장 자리에는 물 깊이 2.5~5cm정도에 심어준다. 옥외에서는 *C.eragostis*는 대부분의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빛이 충분하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축축한 곳일 필요는 없다. 일년생의 경우 스스로 씨를 뿌려 다시 싹을 틔운다. *C.longus*를 물 깊이 15~30cm로 혹은 축축한 토양에 밝은 태양이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장소에서 가장자리 식물로 기른다. 늦은 가을에 시든 부분들을 잘라내고 온실로 들인다.

증식은 축축한 화분에 봄에 파종을 한다. 내한성이 있는 종은 냉상이 된 화분에, 약한 종은 18~21℃일 때 파종을 한다. 내성이 약하거나 내성이 있는 종 모두를 봄에 분주를 한다.





# 다알리아 속(Genus Dahlia)

다알리아는 대표적인 추식구근으로 30여 종이 대표적이다. 주로 *D.pinnata*와 *D.coccinea*에서 유래된 2000여개 재배종의 속으로 관목을 형성하고 일반적으로 고구마와 같은 덩이뿌리가 있는 다년생 식물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의 산악지대에 있다.

20~50cm 길이의 잎은 톱니모양의 달걀형의 작은 잎은 끝이 둥글거나 깃털모양으로 갈라진다. 다알리아는 큰 꽃을 보기 위해 재배가 되며 흰색에서 빨간색, 오렌지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에서 짙은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과 형태로 재배된다. 이들은 다른 모든 꽃들이 그들의 최상시기가 지난 여름 중순부터 가을(서늘한 온대지역에 첫 번째 서리가 내릴 때까지)까지 꽃을 피운다.

비록 비공식적으로 2개의 타입(키가 큰 화단용 달리아와 작게 자라는 분화용 다알리아)으로 나누어지지만, 모든 종은 정원 장식과 꺾꽂이용으로 적합하다. 특히 거대한 꽃을 피우는 다알리아는 전시회나 축제용으로도 매우 적합하다. 씨앗으로 재배하는 분화용 다알리아는 일년생 식물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른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다알리아는 만약 시든 꽃을 따준다면 대면적의 경관용이나 화단의 가장자리 혹은 화분용으로 적합하다.

전시용이나 꺾꽂이 용으로 길러지는 것은 그들 스스로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 없이 일렬로 심어졌을 때 가장 보기 좋다. 대부분의 다알리아는 그들의 꽃 모양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전시회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길러지는 그룹은 꽃의 크기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한 구분은 많은 국제 다알리아 연합회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내한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한성은 없어 모두 뿌리를 겨울에 저장했다가 봄에 식재해야 하는 춘식구근이다.

재배는 태양 아래, 부식토가 많은 비옥한 토양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모든 다알리아 이른 여름에 매주 고농도 질소 액체 비료를 주면 이롭고, 그리고 나서 고농도 칼륨 비료를 여름 중순부터 초가을까지 매주 공급한다. 분화용 다알리아는 지주대나 적심(순지르기) 등이 필요 없고,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시든 것을 제거한다. 키가 큰 달리아는 심을 때 지주대를 박고, 성장이 진행되면 묶어 주고 키가 40cm가 되었을 때 줄기를 늘리기 위해 가지 끝을 잘라준다.

큰 꽃이 피는 종은 3~5개의 화경으로 제한을 두고, 작은 꽃은 7~10개까지의 화경이 나오게 한다. 고품질 꽃이 피는 것을 위해 잎의 옆에 있는 가장 끝의 싹 밑에 있는 2쌍의 싹을 제거하고 큰 꽃을 위해선 3쌍을 제거한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시든 꽃을 제거한다. 첫 번째 서리에 의해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줄기를 15cm남기고 잘라내어 구근을 뿌리째 캐낸다. 흙을 부드럽게 털어낸 뒤, 거꾸로 한채 서리가 없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마를 때까지 둔다. 곰팡이 방제 약을 뿌리고, 피트모스 상자나 건조한 모래에 넣고 겨울 동안 통풍이 잘 되고 서리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한다. 주기적으로 곰팡이에 의한 감염을 확인하고 손상된 조직은 잘라낸 뒤 곰팡이 제거제를 다시 뿌린 다음 다시 보관한다.

증식은 분화용의 경우 초봄에 기온이 16℃일 때 트레이에 파종을 하고, 묘목을 점차적으로 찬 기운을 쐬어 강하게 한 뒤 모든 서리로부터의 위험이 없어졌을 때 옮겨 심는다. 늦은 겨울이나 초봄에 온실에서 성장이 시작된 싹을 잘라, 모판상자에 삽목하면 뿌리를 잘 내린다. 이른 봄에 성장이 시작되고, 싹이 2cm정도가 되었을 때 구근을 2~3개 붙여 나누고, 서리로부터 모든 위험이 사라졌을 때 12cm 깊이로 옮겨 심는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과 노린재, 붉은 응애, 집게벌레 그리고 민달팽이가 문제가 됨. 또한 흰가루병, 모자이크 바이러스, 토마토시들음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경향이 있고 보관시 구근이 상할 수도 있다.

BARBARRYBALL

Dahlia Berliner Kleene

Dahlia Boogie Woogie

Dahlia Cameo cultivar

Dahlia Alloway Candy

Collarette Dahlia Apple Blossom cultivar

## Special Issue

# 꽃이 좋아, 향기가 좋아~

허브식물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식물은 라벤다, 로즈마리, 민트 정도다. 그리고 우리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향기식물이 존재한다. 향기도 제각각이며 그 진한 정도도 식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번호에서는 꽃도 아름다우면서 잎의 향기도 좋은 정원식물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 향기식물들은 조금만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달콤한 향기로 하나하나 식혀가는 시원한 8월이 되기를....



## 모나다(벨가못)

꽃이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식물이다. 허브식물로는 벨가못이라고도 불리운다. 생육이 강건하고 여름에 피는 꽃이 아름다워 정원식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향기식물로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화색이 다양하고 벌이 좋아하는 식물이다. 생육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것이 좋다.

왜성모나다

## 층꽃

가을에 보라색으로 층층이 꽃이 피는 토종야생화이다. 건조에 강하여 건조지 또는 석축메지용으로도 좋은 식물이다. 내염성이 좋아 바닷가 근처에 식재할 때 유리하다. 겨울에 물이 차는 곳을 피하는게 좋고 근래에는 보라색 뿐만 아니라 흰색과 분홍색꽃이 피는 층꽃도 선보이고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잎에 향기를 가지고 있다.

흰층꽃

## 배초향

시원한 꼬리모양의 보라색 꽃이 피고 방아풀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잎을 먹기도 하여 생식의 재료로도 좋아 가정정원 재배에 효과적이다. 잎이 황금색인 황금배초향은 잎 자체로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흰꽃을 피우는 배초향 품종도 있다. 잎의 향이 뛰어나 허브정원에 알맞은 수종이다.

황금배초향

## 제라늄

꽃이 매우 화려한 일년생 정원식물이다. 꽃이 주먹형으로 모여피며 정원에 군식하거나 포인트식물로도 좋아 일년생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종이다. 특히 둥그란 형태의 잎에서는 강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 종류도 다양하고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제라늄오일은 화장품 향기의 원료 뿐만 아니라 살균작용 및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 숙근꽃향유

관목성의 꽃향유로 건조에 매우 강한 수종이다. 생육이 매우 강건하고 빨리 자라며 특히 배수가 좋고 햇빛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더욱 화려함을 선보인다. 정원에 혼합식재용으로도 좋고 대단위 넓은 군식용으로도 좋은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다.

## 야로우(톱풀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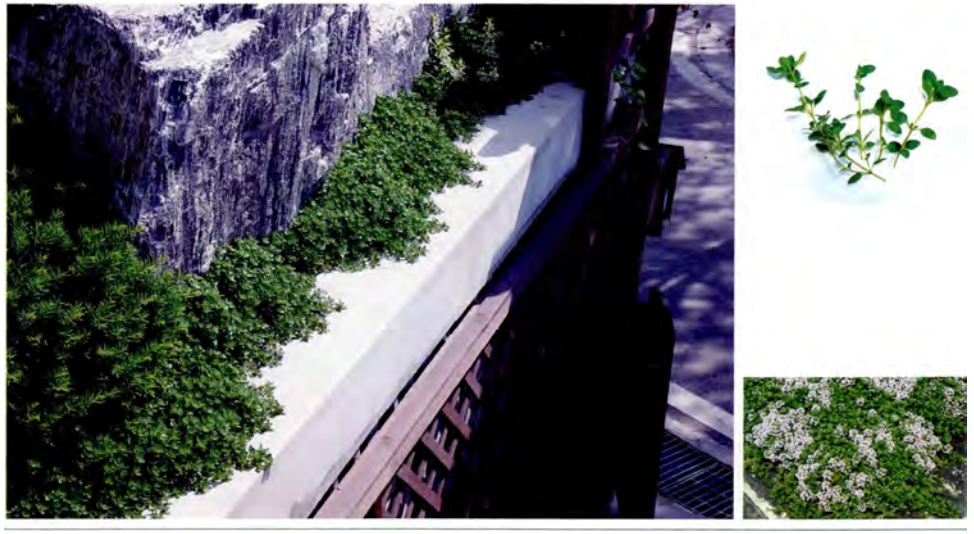
키가 크게 자라며 손바닥만한 넓은 노란꽃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잎의 향이 진한 대표적인 향기식물이다. 일반적으로 톱풀이라고 불리우는데 톱풀의 종류도 많아 정확하게 향기식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품종이다. 키가 크고 꽃이 좋아 정원의 포인트식물로도 유리한 수종이다.

## 알리움(차이브, 두메부추, 산부추)

대부분 직립형으로 자라고 볼형태로 많은 꽃을 피우며 큰 무리를 지어 식재하면 좋다. 하지만 대부분 개화기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다른 식물과 혼성식재하는 것이 좋다. 차이브는 4월말, 두메부추는 7~8월, 산부추는 8~9월경에 꽃을 피운다. 대부분 식용가능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하여야 강건하게 자란다.

## 백리향

목질성의 관목으로 향이 매우 진하고 좋아 대표적인 향기식물이다. 겨울상록성으로 건조암석지 피복용으로 좋아 단이 있는 화단이나 석축의 얕은 메지용으로 좋다. 물론 암석가든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일반적으로 타임이라고 불리는 허브종류중에 속하기도 한다.



## 숙근사루비아

봄에 다양한 색상으로 시원하게 꽃을 피우는 사루비아로 '가든인'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린 우리에게 이제는 친숙한 이름이다.
잎의 향기도 좋고 꽃이 매우 고급스런 느낌을 전해준다. 건조하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고 봄의 라벤다로 불리워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레드모사

로즈

블루

비올라

화이트





## 에키네시아

정원조성시 이제는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정원식물로 한 여름을 시원하게 녹여주는 꽃이다.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허브식물이기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외국에서는 주요 약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큰 꽃과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여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구절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 들국화로 잎은 쑥과 유사하고 향도 비슷하다. 잎의 형태도 잎이 가늘게 나누어지는 것부터 잎이 넓은 형태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하얀색꽃을 피우는데 분홍색꽃을 피우는 분홍구절초도 있다. 분홍구절초는 절간이 짧으며 줄기가 직립형이라 잘 쓰러지지 않는다.

분홍구절초

# 코레우리로 수놓는 무지개정원 – 한강공원 여의지구

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여 아기자기하게 혼합, 혼성식재하는 소정원이 있고 또한 큰 면적에 대단위로 군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면적에 조성할 경우 조성되는 곳의 여건에 맞게 1~2품목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품목으로 넓게 식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정원은 넓은 면적에 일정한 구간을 나누어 색색의 꽃을 피우게 하여 사람의 시선을 확 끌어모으는 무지개 정원으로 지난 4월 코레우리를 대표수종으로 이용한 한강 무지개정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 Ⅰ. 한강공원에 선보이는 무지개 정원

한강공원은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특히 주말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요소요소에 꽃을 심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다. 한강공원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의지구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정원으로 접근하였다. 꽃을 보면서 그 자체로 즐기는 다시 말하면 정원을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주변의 넓은 잔디밭을 이용하여 무지개 정원을 기획하였다. 무지개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소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장기개화종이면서 여러 가지 색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그 의미가 깊은 코레우리를 주품종으로 이용하여 멋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다. 그 현장을 식재시점부터 꽃이 피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또한 다른 무지개정원도 사진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 Ⅱ. 4월 하순, 무지개를 그리다.

먼저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공원의 중심부 잔디밭에 무지개정원을 조성할 곳을 2군데 선정하였다. 1곳은 평지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1곳은 경사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물결치듯 경관이 보일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먼저 잔디를 솎아내고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약 1품종당 1.5m폭으로 면을 정리하였다. 평지쪽의 무지개정원은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5종과 팅커벨시리즈 2종 그리고 하늘국화 1종, 총 8라인으로 조성되었다. 반대편의 경사쪽 라인은 코레우리 스트로베리캔디 등 4종, 가우라베이비 3종 등 총 7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장기개화종으로 1차개화후 커팅해주면 다시 꽃을 볼 수 있어 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재 하루전 면정리를 하고 4월 22일 드디어 품종별 식재를 마치고 무지개 정원을 완성하였다.

## Ⅲ. 6월 중순, 무지개가 떠오르다.

식재후 약 1달이 지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가우라베이비 품종은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인공인 코레우리 품종들은 6월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꽃대가 맺히면서 무지개의 물이 들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6월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무지개정원이 떠오를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후 만개된정원은 그야말로 환상의 경관을 보여주었다. 색색이 보여주는 강렬함과 아름다움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안내하였다. 서울 도심속에서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내의 아름다운 정원은 잊을 수 없는 새로운 힐링의 공간이 되었다.

## Ⅳ. 코레우리, 진가를 발휘하다

이번에 사용된 코레우리는 실제로 국내보다는 외국의 바이어들에게 더 공을 들인 품종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야생화 첫 로얄티품종으로 '우리꽃연구소'는 코레우리 독자품종만 약 50여종 보유할 정도로 많은 품종을 선보이고 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여왔고 올해 무지개정원을 통해서 그 진가가 국내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듯하다. 코레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품종이 있어 구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 만큼 코레우리 품종만으로도 다양한 경관연출이 가능한 것이다.

오렌지

화이트

레드

핑크

옐로우

## Ⅴ. 사진으로 보는 국내 무지개정원

사진1. 가우라, 황금조팝, 후룩스, 꼬리풀, 숙근왜성천인국, 노랑숙근코스모스 등 숙근초로 조성된 무지개정원으로 초기에는 잡초, 커팅, 비배관리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2. 가우라를 비롯하여 왜성코스모스, 버베나 보나리언시스, 황화코스모스 등 1년생 위주로 조성된 무지개정원. 1년생으로 대면적 조성할 때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면 미리 트레이묘종으로 계약하여 식재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단지 식재후 어린 묘이기 때문에 초기에 물관리 등을 잘 해주어야 한다.

사진3. 대면적에 숙근초로 조성된 무지개정원. 후룩스, 금계국 왜성사계, 톱풀 비단 등 약 10여종으로 조성되어 있다. 대면적이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잡초방지용 지커버를 깔고 식재하였다.

사진1

사진2

사진3




지금은 정원시대!

우리씨드 박공영 회장과 함께하는

# 정원의 시공과 현장관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이제는 정원이 대세!
정원 조성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실험해온 우리꽃에서 정원 시공, 관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스파르타식 현장교육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는 물론 미래의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 나갈
박공영 사단의 핵심으로 성장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지원하세요.

**모집기간** : 2015년 7월 1일 ~ 8월 31일
**모집인원** : 2~3명
**모집조건** : 조경, 원예, 농업관련 학과 전공자 / 농고 졸업생 우대
**교육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인턴기간** : 3개월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우리씨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신청방법** : 이력서 제출 **(메일주소: jhseo@uriseed.com)**

**문의는 031. 634. 7990** 으로 해주세요

우리씨드그룹 URISEED GROUP

#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서 봄**
장래 최고의 가든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꾸며 대한민국 하늘아래 폭풍성장중인 아이

## 꽃을 넘어서는 아름다움 그라스

그라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든인'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린 것 같네요. 이번에 다시 제가 그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만큼 정원식물로서 꽃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물씬 베어나오기 때문이에요. 화본과와 사초과로 대표되는 그라스는 흔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 억새입니다. 억새는 그 종류도 다양하여 호피, 리틀제브라, 파랑새, 그린라이트, 모닝라이트, 골드바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네요. 억새처럼 키가 큰 종류도 있고요, 수크령, 홍띠 등 중간형이 있고 대사초, 좀새풀 등 키가 작은 포복형을 비롯하여 크기도 다양합니다. 잎의 색감이 뛰어난 종류도 있으며 전체적인 초형이 아름다운 종류도 많습니다. 몰리니아와 무늬새의 경우 곧바른 직선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억새 종류는 풍성한 볼륨감이 그 가치를 더해줍니다.

왜성수크령 어때요? 이쁘죠!

군식을 해도 좋고, 볼륨감이 좋은 종류들은 포인트용으로도 좋아요. 그라스들끼리 혼합식재해도 좋고 꽃이 좋은 초화류와 잘 어울리게 혼합 또는 혼성식재해도 좋습니다. 특히 그라스류들은 대부분 겨울을 나고 이듬해 늦게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른 봄 꽃을 피우는 튤립 등 추식구근과 혼성식재하면 좋고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꽃백합, 리아트리스 등 구근식물과 혼성식재해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대사초류, 아이스댄스 등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요, 갈사초, 파란깅의털, 털수염풀, 에버골드 등은 디스플레이용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입니다. 대부분 생육이 강건하고 병해충에도 강해서 그만큼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 겨울에 잎이 갈변하면 바로 자르지말고 3월중순 넘어서 잘라주세요. 지상부의 마른 줄기가 겨울동안에 봄눈을 얼지않도록 보호해 주거든요. 그라스류는 확인된 품목만해도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내어 화려한 꽃과는 다른 멋을 보여줍니다. 산들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라스류의 또 다른 매력을 이번 가을에 경험해 보세요!

와! 무늬억새 종류들이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옆페이지에서 국내외의 그라스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 그라스류 들여다보기

포인트로 식재된 억새류들이 암석가든을 더욱 기품있게 해주네요.

갈사초, 털수염풀 디스플레이용으로 안성맞춤.

무늬새가 아름다운 숙근초와 어울리며 더욱 돋보이네요.

에키네시아와 억새류의 절묘한 조화

호피, 모닝라이트등 억새류가 풍성한 물매를 자랑합니다.

무늬억새 사이에서 몰리니아가 시원스럽게 뚝뚝!

왜 이런 왕수크령은 처음보네.

관목 시대

# 정원의 필수선택 *Spiraea*(조팝나무)

몇 년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을 중심으로 이제는 관목시장의 주 패턴으로 등장한 조팝나무군에 대해서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잎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로서 그 쓰임새가 많고 앞으로도 조경현장에서 유망한 소재로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목소재이다.

## 다양한 일본조팝군

조팝은 우리에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른 봄의 전령과도 같다. 특히 하양의 꼬리와 같은 길고 가는 줄기에 탐스럽게 피어 큰 무리를 형성할 때면 절로 감탄이 나오는 관목이다. 이번에 소개할 조팝류는 여름에 개화하는 관목으로 학명을 *Spiraea japonica pp.*를 쓰는데 우리 덤불조팝(*S. miyabei*), 참조팝(*S. fritschiana*)과도 많이 닮았으나 학명의 속명이 *japonica*로 되어 보통 일본조팝군으로 분류된다. 일본조팝의 식물군은 전 세계적인 관목품종이 되어 많은 품종이 개량되어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재배 되고 있다. 품종들을 소개하자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색조팝은 이른 봄 새순이 빨갛게 올라와 꽃이 없는 시기에 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메인사진). 황금조팝은 키가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성격이 있어 키 작은 라인식물이 필요할 때 안성맞춤의 소재이다(사진1). 특히 노란색의 질감은 포인트식물로도 제격이다. 그리고 키가 60~80cm 정도 자라는 흰꽃조팝, 분홍조팝, 붉은까실조팝 등이 있는데 먼저 흰꽃조팝은 일반적으로 일본조팝의 변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혹 하양의 꽃에

사진 2

사진 3

사진 1

서 분홍이 섞여 나오기도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사진2). 일반적으로 하양의 꽃을 피우는 식물들의 잎은 연한 녹색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이 흰꽃조팝의 잎도 맑고 깨끗한 잎을 가져 더욱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준다. 분홍조팝과 붉은까실조팝은 잎의 형태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꽃이 진분홍으로 필때는 모두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사진3). 조팝나무는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뿐만아니라 웬만한 습기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또 심한 음지만 아니면 생육이 좋아 현장에서 적용폭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잎을 감상하는 황금이나 삼색조팝은 너무 음지에 심으면 품종특성(색감)이 잘 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들 모두 특별한 관리방법은 없으나 기본적인 비배관리와 함께 식물 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정이 필요하고 흰꽃조팝, 분홍조팝, 붉은까실조팝은 꽃이 지고난뒤 꼬투리를 잘라 주면 계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다.

## 가정정원, 아파트, 공원 등 어디에나 유용한 관목소재

대부분 양지는 물론 건물의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아 아파트의 모퉁이는 물론 철쭉 등의 대체관목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돌메지용으로 이용해도 아주 좋다. 잎이 조밀하고 꽃도 좋아 돌메지용의 관목이 부족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라인을 형성하며 군식하는게 더욱 좋으며 대형공원들의 보행로, 산책로 주변에 이용하면 좋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조팝종류들을 혼합하여 군식해도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암석가든의 돌주변이나 포인트식물로 잘 어울리고(사진4, 5) 여름에 피는 꽃백합과 혼성식재하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사진6). 물론 초화류와 혼합식재시에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사진7,8). 일본조팝의 식물군은 앞으로 더욱더 가정정원, 아파트, 공원 등 어디에서나 그 쓰임새가 다양한 관목소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이명호의 야생화

# 꽃창포와 붓꽃의 구별 및 꽃창포 무리들의 다양성 확인

# "꽃창포"

## 붓꽃科의 식물 무리

붓꽃科의 식물을 크게 두 무리로 나눈다면 붓꽃 무리들과 꽃창포 무리들로 쉽게 나눌 수가 있다. 이들 중 붓꽃 무리들은 상당히 많은 종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꽃창포 무리들도 특징과 모양에 따라 소수 몇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식물을 관찰할 때 외형만 대충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비교·관찰을 하여야만 한다. 꽃의 구조가 어떤지? 암꽃과 수꽃은 구분이 되는지? 잎의 모양은 어떤지? 털은 있는지?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만 식물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 꽃창포의 특징

붓꽃科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습기가 있는 산지에서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높이가 60~120cm이며 여러 개가 모여난다. 뿌리줄기는 짧고 갈색 섬유로 싸여 있다. 잎은 어긋나며 표면은 녹색이고 광택이 많이 있다. 잎의 길이는 20~60cm, 폭이 5~15mm이다. 햇빛이 많이 비치는 습지에서 잘 자란다.

## 꽃창포의 꽃과 열매

꽃은 7~8월에 줄기나 가지 끝에 붉은 빛이 강한 자주색으로 핀다. 꽃의 밑부분은 잎집 모양의 녹색 포 2개가 둘러싼다. 외화피는 3개이고 맥이 있으며 안쪽에 가늘고 짙은 황색 줄무늬가 있다. 내화피는 3개이고 외화피와 어긋나며 곧게 서고 길이가 4cm 정도이다.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 밑부분에 암술머리가 있다. 수술은 암술머리 뒤에 위치한다. 씨방은 하위(下位)이고, 열매는 삭과이며 긴 타원 모양이고, 종자는 갈색으로 익는다.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며, 전국의 산지에 드물게 분포한다.

## 붓꽃과 꽃창포의 상세 구별법

붓꽃의 외화피 아래쪽에 들어 있는 흰색, 황색, 자주색으로 혼합된 어수선한 그물무늬에 비해서, 꽃창포는 외화피 안쪽에 가늘고 길게 들어 있는 황색의 줄무늬가 꽤도 가지런하고 정결한 편이다. 꽃잎의 색깔이 어떠하든, 꽃창포 무리들은 가운데 발달된 가늘고 긴 황색 줄무늬는 모두 공통이다. 외화피의 모양도 붓꽃보다는 훨씬 갸름하고 날씬하게 벋은 모양이다. 여러 가지 꽃창포 종류들을 모두 한데 묶어 본다.

## 꽃창포 종류들의 분류

기본종인 꽃창포는 꽃잎의 색이 붉은 자주색이다. 흰꽃창포는 흰색이고 노랑꽃창포는 노란색이다. 꽃창포와 흰꽃창포는 꽃줄기가 갈라지지 않고 곧게 올라와서 끝에 꽃이 하나씩 달리지만, 노랑꽃창포와 흰노랑꽃창포는 꽃줄기가 여러 번 갈라진 다음 줄기 끝에 꽃이 2~3개씩 달리는 점이 다르다. 꽃창포와 흰꽃창포는 습기가 많은 산지의 양지쪽에서 자라지만, 노랑꽃창포와 흰노랑꽃창포는 원산지인 유럽에서 들여와 연못가에 심어 기르는 원예종이다.

## 꽃창포를 닮은 아이리스(*Iris*)

속명이 아이리스(Iris)인 꽃들 중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우리의 꽃은 붓꽃 무리들과 꽃창포 무리들이지만, 외국에서 들여와서 다양하게 개량하여 만든 원예종들은 특별한 우리말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속명인 아이리스(Iris)를 그대로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비교적 색이 단조로운 붓꽃이나 꽃창포에 비해서, 원예종으로 품종개량을 하여 기른 아이리스 종류들은 색상도 다채롭고 모양도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편이다.

## 꽃창포에 얽힌 사연

예로부터 머리감을 때 천연세제로 사용되어 왔던 '창포'라는 천남성科의 습지식물이 있는데, 샴푸가 처음 개발되고 나서 선전광고로 꽃창포 사진을 잘못 실었던 해프닝이 있었다. '인공적으로 만든 샴푸의 성능이 천연세제에 가깝다는 뜻'으로 게재한 꽃사진이 창포 사진이어야 했지만, 애석하게도 이 꽃창포 사진을 잘못 올렸던 것이다. 식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된 큰 오류였던 것이다. 식물의 비슷한 이름인 창포, 꽃창포, 돌창포, 석창포에 대한 구별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 COLOUR IN THE GARDEN

# SUMMER COLOUR

갈색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색이다. 농부가 작물을 키우기 위해 씨를 뿌리는 '흙'이 갈색이고 나뭇가지나 줄기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물드는 나뭇잎 속에도 갈색이 뿌려져 있다. 자연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색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고 편안함을 주는 색 중에 하나가 갈색이 아닐까. 너무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갈색의 매력을 조용히 들여다 보자.

오 도
풀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 갈색은 화단에서 훌륭한 배경색이 되어 준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인 갈색은 녹색만큼이나 모든 색을 포용한다. 영국 정원 중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다이나믹하게 연출하기로 유명한 그레잇 덕스터(Great Dixter)정원 사진을 살펴보자. 큰 나무들의 짙은 녹색이 맨 뒷 배경으로 깔리고, 그 앞으로 벼과 식물의 연한 갈색의 꽃들이 부드러운 선율로 흔들거린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진한 빨강과 보색의 진한 파랑이 넓게 분포하면서 시선을 자극한다. 만약에 빨강과 파랑의 배경으로 갈색이 오지 않았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금새 피로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갈색과 가까운 색이니 노란색의 버바스쿰(*Verbascum spp.*)이 군데군데 위치해 갈색과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 갈색은 물과 잘 어울리는 색이다

물위에 떠서 귀여운 잎과 예쁜 꽃을 피우는 수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잎이 윗부분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녹색이지만, 아래쪽은 물과 녹색의 잎이 닿으며 갈색이 된다.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연못에는 주로 부들이나 붓꽃 등 수생식물들이 자라면서 영양분을 제공한다. 그 덕분에 먹을 것을 찾아오는 생물들이 모여들면서 물의 색은 검은 빛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 검은 빛의 연못에 녹색의 잎과 파랗고 노랑의 붓꽃들 그리고 갈색의 수련이 우아하면서도 고상을 느낌을 만들어 낸다.

## 겨울에 더욱 돋보이는 갈색 가지의 아름다움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잎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무는 알몸이 된다. 초록의 잎들로 싸여 보호받던 가지들이 드러나면서, 마치 하늘을 향해 무용을 하는 멋진 무용수처럼 자유롭다. 오래된 줄기는 마치 울퉁불퉁한 근육을 보는 듯이 튀어나와 있고, 배롱나무의 경우는 줄기가 부드럽기까지 하다. 화려한 꽃들이 모두 모습을 감춘 겨울. 겨울 정원에서 상록의 잎들과 꾸밈이 없이 멋진 갈색 나무들의 멋진 모습에 눈을 돌려보자.

# Harmony 어울림조화

## 1. 갈색과 녹색의 어울림

대지의 색인 갈색과 식물을 대표하는 녹색의 만남은 실패할 일은 거의 없다. 식물 중에서도 텃밭에 심는 채소는 먹을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다. 호박의 큰 꽃은 노란색이라 더욱 잘 어울리고, 오글오글하기도 하고 치맛자락처럼 하늘거리는 상추 잎은 그 자체로 꽃잎이 된다. 덕분에 밋밋하기 쉬운 텃밭이 정원이 된다.

## 2. 갈색과 노랑의 어울림

풍년화속(*Hamamelis spp.*)의 노란 꽃잎은 가늘고 길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도, 명도가 높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밝은 인상을 준다. 꽃잎이 더욱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는 밝은 색상에서 오는 이유도 있지만, 풍년화속의 진한 갈색의 잎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갈색과 노란색은 색상환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생기기도 하며 색감을 잘 녹여 내면서 한눈에 들어온다.

## 3. 갈색과 파랑의 어울림

보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듯한 파란색 라벤더 뒤로 안개나무 꽃이 뭉실뭉실하게 피어오른다. 안개나무 꽃은 꽃이 지면서 색이 점점 옅어지고 연한 갈색빛으로 바뀐다. 안개처럼 피는 꽃 자체만으로도 신기한데, 꽃 색깔이 연한 갈색이 되는 것 또한 궁금증을 일으키며 아름답다. 파란색 라벤더의 투명에 가까운 색감이 안개꽃의 연한 갈색과 만나면서 마치 흐르는 물을 연상하게 한다.

## 4. 갈색과 어두운 색의 어울림

노란색 꽃잎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들어간 원추천인국속(*Rudbeckia spp.*)의 어두운 잎을 가진 휴케라(*Heuchera micrantha 'Palace Purple'*) 잎과 만나면서 두 배나 밝게 보인다. 원추천인국의 꽃잎이 단지 노란색이었다면 너무 떠버릴 수 있는 느낌이 갈색톤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한여름 화단에 멋진 만남이다.





# Harmony in Garden 잘 어울리는 식물들

*Araucaria cunninghamii (Kew Garden)*

*Primula sp.*

*Athyrium otophorum var. okanum*

*Victoria 'Longwood Hybrid'*

*Osmunda regalis*

스페인 그라나다

# 알함브라 궁전 정원

알함브라 궁전(Alhambra Palace)을 보고 싶어 스페인을 방문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40도를 넘는다는 스페인 여름이 걱정스러워 7월을 넘기고 겨우 8월말-9월초에 일정을 잡았다. 마드리드는 내륙이라 무척 더웠지만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는 지중해에 가까워 그렇게 덥지 않았다.

이슬람 양식의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왕국이 13~14c에 건설한 아름다운 궁전으로 유럽에 현존하는 아랍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궁전이라 한다. 알함브라 궁전은 나스르 궁전과 카를로스 5세 궁전, 왕의 여름 별궁인 헤네랄리페 그리고 요새인 알카사바의 4개 부분으로 나뉘고 그 외 여러 채의 궁전과 탑, 연못과 정원 등이 있다.

왕의 집무실이자 생활공간인 나스르 궁전은 알함브라 궁전 관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왕궁 내 사자의 중정(Patio de los Leones)과 중정을 에워싸는 공간은 왕의 사적 공간으로 왕 이외의 남자들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중정은 124개의 가느다란 대리석 기둥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중앙에는 12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커다란 원형 분수인 '사자의 샘'이 있다. 내가 간 시기에는 보수가 진행중이었다.

손 관 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나스르 궁전에서 나오면 파르탈 정원(jardines del partal)이 보인다.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연못에 비치는 귀부인의 탑(Torre de las Damas)이 아름답다.

헤네랄리페(Generalife)는 낙원의 정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왕의 여름 별궁이었다. 이 곳에서 아세퀴아의 정원(Patio de la Acequia)은 정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데 긴 정원의 중앙에 좁은 수로를 설치하고 좌우로 12개가 넘는 분수가 가느다란 물줄기를 공중으로 뿜어 올리고 있다. 주위에는 담쟁이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꽃들이 피어 있다. 물과 정원수가 어우러진 경관은 이슬람 정원의 특징이다.

알카사바(Alcazaba)는 9~13세기에 지은 요새다. 알함브라 궁전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지금은 그 자취만 남아 있다. 요새 중앙에 있는 벨라의 탑(Torre de la Vela)에 오르면 알함브라 궁전 내부와 알바이신 지구, 그라나다 중심부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왕은 궁전을 만들 때 가장 멋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알함브라 궁전은 궁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궁전의 위치로 인한 궁전에서 바라보는 경관, 그리고 반대편 알바이신 지구에서 바라보이는 궁전의 아름다움을 통틀어 최고의 궁전으로 칭송받는 것 같다. 인도의 타즈마할 궁전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타즈마할 궁전에서 바라보는 주위의 경관과 멀리서 바라보이는 타즈마할 궁전은 환상적이다.

알함브라의 왕궁과 요새 주위를 전통 이슬람 정원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슬람 생활 방식에서 정원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원에서 흐르는 물은 마음을 가라앉혀 주고 건물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정원 여기 저기 연못과 분수, 수로를 볼 수 있다.

넓은 궁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정원에서 가드너들이 열심히 잡초를 뽑고 식물을 교체하고 있었다. 정원 대부분은 화양목을 다듬은 생울타리로 기하학적 모양으로 경계를 만들고 내부에 나무와 꽃을 심었다. 점적식 관수선이 필수로 구비되어 있는 스페인의 오늘날 화단과 달리 알함브라 궁전의 화단에는 배수로와 같은 화단 고랑에 물을 흘려보내 관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은 완벽하게 손질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정원과 달리 전반적으로 식물이 좀 너덜거리기는 느낌을 주지만 균형미 넘치는 낡은 궁전과 요새, 그리고 주위 경관과 어우러진 시골 전원같은 느낌의 정원으로 편안함과 한적함을 느꼈다. 여름 스페인 여행이 무척 힘들었는데 알함브라 궁전을 보면서 스페인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궁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스페인의 주택들 사이사이로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사이프러스와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함브라 궁전을 나온 뒤 알바이신 지구로 가서 집시들의 노래를 들으며 알함브라 궁전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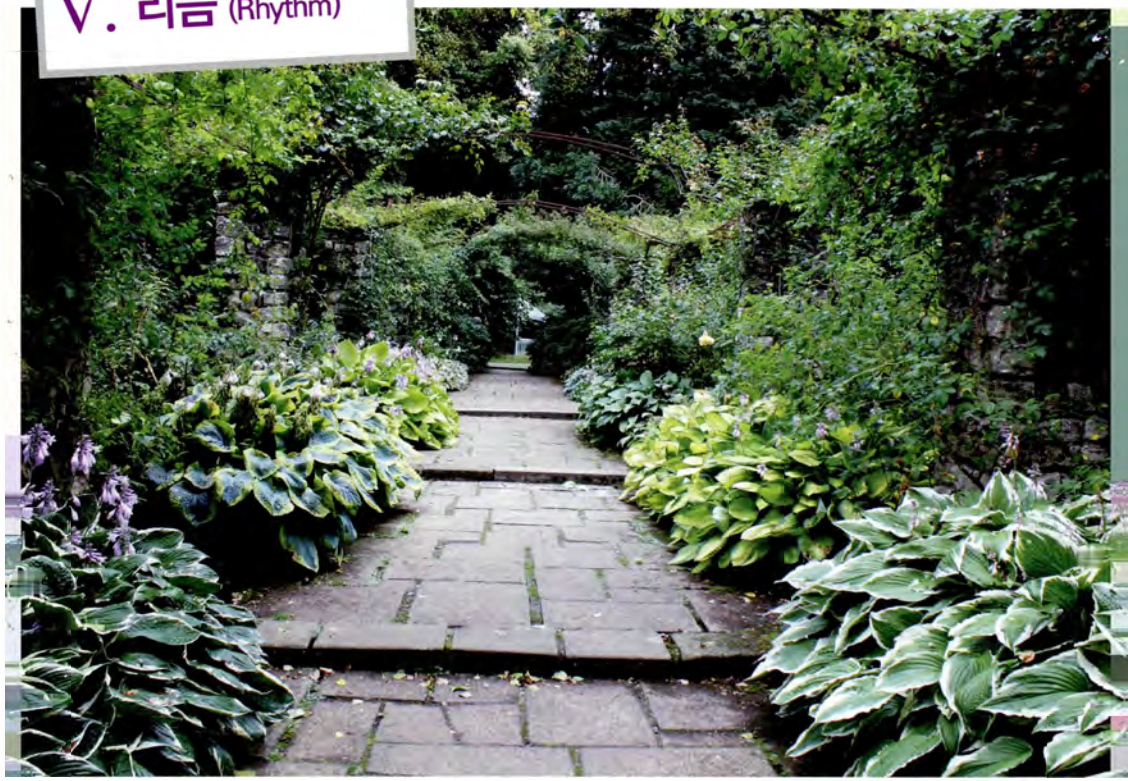




#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 V. 리듬 (Rhythm)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사진1. Neyby Hall and Garden (2013, 영국), 식물: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Hosta 'Great Expectations', Hosta tokudama f. flavocircinalis, Hosta 'Hadspen Blue', Hosta 'August Moon']

이번 달에 소개 할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정원의 리듬(Rhythm)이다. 리듬이라하면, 음악에서 음의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음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미술계에서도 리듬은 선, 형, 색의 비슷한 반복을 통하여 이루는 통일된 율동감. 즉 농담, 명암 따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배열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리듬의 사전적 정의가 정원 디자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정원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이 사전적 정의에서 정원디자인의 리듬감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단어만을 꼽자면 '반복'이라는 단어이다. 반복은 리듬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인데 일정한 규칙 또는 변칙을 통해 정원이 가장 다이나믹해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사진1.은 자연석 기둥이 반복되고, 그 아래에 자리잡은 호스타 역시 반복해 배치되었다. 이는 형태(Form)와 질감(Texture)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정원으로 운율이 느껴진다. 호스타 식재 군락의 양(Positive)의 부분과 석재 포장의 음(Negative) 부분의 조화 역시 훌륭하다. 여기에 호스타는 각기 다른 종을 섞어 심어 조금의 변칙을 허용해 더욱 다이내믹한 느낌을 준다.

[사진2. Alnwick Garden (2013, 영국)] *Hornbeam pegolas* 식재 와 stone 커브담 완성

영국 북쪽지역에 위치한 Alnwick Garden은 메인 게이트를 지나 정원에 딱 들어서면 사진2.와 같은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현대적 정원으로 분류되는 안윅가든(Alnwick Garden)은 규칙적인 곡선이 사용된 수공간을 통해 강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곡선에서 느끼는 운율이 워낙 큰데다가 반복해서 같은 모양을 사용해 그 리듬감이 배가 되게 했다. 여기에 생울타리의 형태도 그 곡선을 그대로 따라 더욱 흥미로운 정원이 탄생했다. 위쪽으로 갈수록 그 크기를 좁게 해, 음악적 용어인 디크레센도(〉, 점점 작게)의 형태를 띤다.

계속, 음악적 용어 얘기를 해본다면, 다,다,다,다 로 표현되는 스타카토의 리듬을 띈 형태의 정원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진3.과 같이 잘 다듬어진 주목이 일정하게 반복되면서 구조를 잡아주기도 하면서 리듬이 느껴진다. 사진4, 5 역시 구 형태와 길게 전정된 상록수가 일정하게 반복되어 더욱 흥미를 불어 일으킨다.
식물 재료의 반복뿐 아니라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용해 리듬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사진6.과 같이 불규칙하게 식재된 다알리아 사이에 구조를 잡아주는 오벨리스크가 반복해 설치되어 꽃이 감고 올라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리듬감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된다.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3. Elton Hall (2013, 영국), 배경 *Carpinus betulus* 와 사각볼 토피어리 *Taxus baccata* 주목]

[사진4. Elton Hall (2013, 영국), 볼 모양 토피어리 *Buxus sempervirens* 회양목]

[사진5. East ruston old vincarage (2013, 영국)] 원볼모양 *Taxus baccata* 주목 , 중앙위 *Brugmansia sp.Fushsia cv.* , 중앙 아래 *Pelargonium cv*

[사진6. *East ruston old vincarage* (2013, 영국), 다알리아]

7. East ruston old vincarage (2013, 영국), 털수염풀 *Stipa tenuissimar*과 *Bergenia sp.*]

사진8. Scampstone (2013, 영국)] 나무 *Tilia sp.*

사진9. Elton Hall (2013, 영국), *Taxus baccata* , *Lavandula angustifolia* , 알리움 등이 이용됐다

사진10. Elton Hall (2013, 영국)] *Wisteria floribunda Lavandula angustifolia*

식물중에는 그라스(*Grass*)의 형태가 리듬을 표현하기 좋은 소재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움직임(Movement)이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그 형태(Form)로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다. 사진7.역시 그라스의 일정한 반복으로 리듬감을 나타냈다. 그에 반해 사진8.은 그라스를 곡선 군락을 만들어 하나의 큰 움직임을 갖게 했다. 정원의 크기가 크고, 모던한 정원에 어울릴만한 식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8.에 보이는 *Scampstone* 플랜팅 디자이너로 유명한 피에트 오돌프가 디자인한 정원으로 식재의 특성을 잘 이용해 정원에 현대적으로 적용했다.

정원에서 리듬은 색의 반복으로도 표현 할 수 있다. 사진 9.는 상록수의 배치와 보라색의 라벤더의 반복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사진 10. 역시 보라색으로 일정하게 통일감을 주며 배치했다. 형태와 질감, 색의 반복을 통해 정원의 리듬감을 살리면 더욱 다이내믹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정원에도 고려 해볼만한 요소이다.

# 33톤 물의 힘

## Alnwick Water Garden 안윅 수경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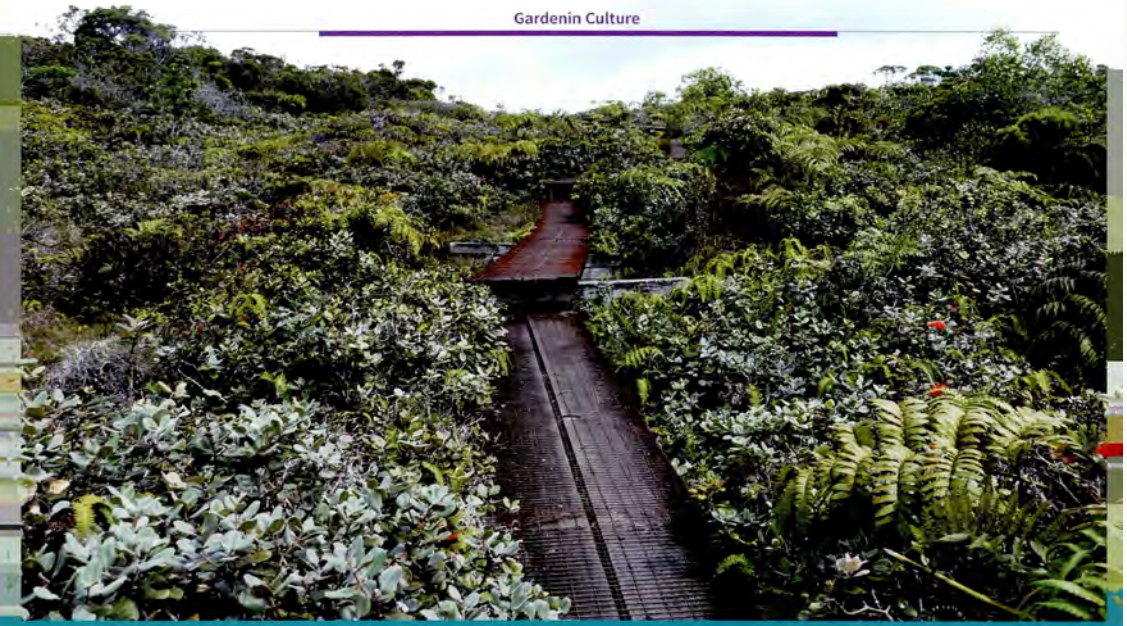
The Alnwick Garden, Northumberland, England, UK

글. 사진 가든인 편집실 제공

안윅가든 ( Alnwick Garden)은 현재 Northumberland의 공작부인의 목표을 기획한 정원으로 3가지는 inspiration 영감, education 교육, 그리고 fun 재미이다. 2002년 10 월 공식적으로 20세기 Alnwick 정원이 문을 열었으며, 영국의 황태자가 방문하여 첫 단계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정원에 자선단체들의 후원은 "문화환경을 변화 하기 위해 노력." 이를 모토로 하여 "현대 원예의 우수성과 놀이, 학습, 예술, 및 정서적 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원이다.

Alnwick Gardens
Denwick Lane Alnwick, Northumberland Just off the A1
Tel. 01665 511 350

그랜드 캐스케이드, 노섬버랜드 Darney돌의 건설은 전체 정원의 중심이다. 분 당 물의 흐름의 7260갤런 아래 21개의 계단식보( weirs) 는 1분에 7260 갤론(약 33톤의 양)의 물이 방출, 약 30분마다 (1 gallon = 약 4 리터) 물의 4분의 1은 지하 저장 및 필터링, 재활용, 순환하며 4종류의 분수 디자인쇼는 30분마다 새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그랜드 캐스케이드 주변 나무는 Hornbeam pergolas와 149,000돌이 사용되었다. 지하에는 온실로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그랜드 캐스케이드 양쪽에 2개의 뱅크는 1850년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정원구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850그루의 Hornbeam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터널 정원을 디자인 하였다.



# Kauai Island Tracking - 하와이섬

Hawai 섬 군도에 제일 북단에 위치한 섬, Kauai 섬이 있다.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긴 섬인데 별명이 garden island라고 한다. 이곳이 유명해 진 것은 "쥬라기 공원" 영화 촬영소로 알려 지면서 그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몇 번 호노룰루, Maui 섬을 관광차 다녀온 적은 있어도 만반의 트랙킹 장비로 그것도 평생 처음으로 혼자 떠 떠난 것 2011년 10월 처음이었다. 미국 출장을 잠시 가게 되었는데 평소 하와이 군도의 자연 환경이 앵무새앵 아름다울 것이라는 환상이 나를 잡아 당겼다. 인터넷으로 "top 10 best trails in the world"를 들어가보니 Kauai섬에 "Kalalau trail"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출장 돌아 오는 길에 그곳을 탐험 하기로 마음먹고 알아보니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호노눌루 들려 오는 것은 추가 비행기 값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어 더욱 신이 났다.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호놀룰루에서 바로 작은 비행기로 Kauai섬으로 밤늦게 이동하여 Jeep차를 빌려 인근 지역에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 Kalalau 트랙킹을 알아보니 그 섬 주민센터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여 3일뒤에 날자로 허가를 받았다. 며칠만 그 섬을 둘러보고 온다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다.

Kalalau 트랙킹은 편도 약 16KM, 왕복 32KM로 깍아내리는 절벽길을 해변을 따라 왜소한 길로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하루 꼬박 갔다가 끝 지점에서 야영하고 다음날 돌아와야 하는 이틀 코스이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습지만 일주일 동안 다른 지역도 돌아보면서 그 트랙킹만 두번반 80KM를 완주하게 되었다.

"노스탈자"라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 나오는 경관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 바다 파도가 절벽을 내리치는 물거품은 시종일관 그 어려운 코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 시켰다. 가끔 비가 오면

바다에 거대한 무지개도 나타나 garden island의 진 면목을 보여주었다.
이 섬의 다른 국립공원등 주로 걸어서 많은 곳을 탐색하게 되었다. 야영 텐트지역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곳은 완전 흰꽃으로 병풍을 둘러 쌓인 곳에서 야영지로는 혼자서 초 호화판인 곳에 하루에 약 5달러 경비로 지내기도 하였다. 그 역시 garden

Cibotium splendens

Plumeria (various)

island였다. 어느 날은 평생 간직할 추억이 남는 밤이 있었다. 해변가에서 야영하고 자다가 잠이 깨어 잠시 텐트에서 나와 밤 하늘을 보니 무수한 별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침 가져간 망원경이 있어 하늘에 조준 했을 때 망원경에 나타난 별들 뒤의 어마어마한 은하수며 수억 만개의 별들 세계를 보고는 턱이 열려 버렸다.
이렇게 우주 세계가 거대하고 보잘것 없는 너무 작은 나를 발견하고 소침해지며 앞으로 겸손의 세계로 돌아가 조용히 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섬에는 야생닭도 공작새 비스름하게 아름답고 앵무새는 보지 못했지만 불고 푸른 아름다운 새들도 많았다. 아름다운 꽃, 과일나무, 열대 식물등 다양 하였고 소나무도 있으나 소나무로는 세계에서 가장 못 생겼다.

독자분들도 어느 여행 기회가 오면 혼자도 떠나 보시라 권하고 싶다. 나도 어릴적 부터 무서움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용기를 내어 혼자 가보니 지낼 수 있었다. 가보고 싶은곳을 내 마음데로 가보고 혼자도 여행하는 법을 익혀서 동료가 여의치 않을때 혼자 여행한는 관습도 가져야 다양한 여행 경험을 하게 된다. 세계 오지 트랙킹을 하다보면 반 이상이 혼자 오는 솔로 트랙커 였다.





# 자연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연 '식물원 · 수목원' 을 만나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이번 8월호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식물원 및 수목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대에는 현재 17개의 국립, 공립, 사립,학교 수목원과 식물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물원 2곳, 수목원 2곳으로 용인 한택식물원, 포천 광릉수목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포천 평강식물원을 지난 6월에 다녀왔습니다.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 식물원과 수목원 소개에 앞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에 공포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일명 수목원 · 정원법이라 약칭되는 이 법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수목원과 정원의 운영주체와 운영 관리 전문가 양성, 운영 예산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관한 조항이 있어 정원 조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정원 관련산업인들은 꼭 법률안의 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지금부터 지난 6월 말에 다녀온 식물원 및 수목원에 조성된 공간과 식물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사진 김 홍 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궁결길라잡이 총묘

# 1. 용인 한택식물원

〈그림 1〉 한택식물원 입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은 1979년에 설립하여 현재는 자생식물 2,400여종과 외래식물 7,400여종을 확보하고 있는 약 20만평의 규모의 식물원입니다. 한택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종의 확보와 함께 환경부 지정 희귀멸종위기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특성과 조화를 고려하여 36개의 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생정원(낙우송)

석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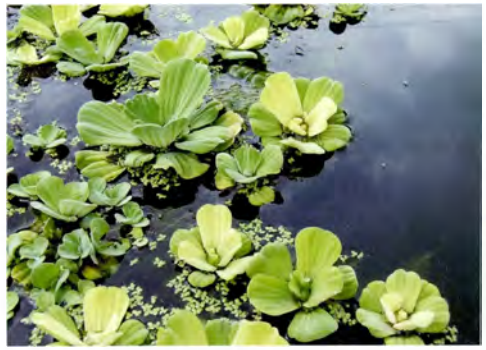
비비추원





## 한택식물원에서 눈에 띄였던 꽃과 나무들

수생식물의 수질정화 기능에 탁월한 식물



물배추

빨간 꽃망울에서 나는 꽃향기가 좋은 정원수

댕강나무

한택식물원에서 노란색의 빛깔을 자랑하는 식물

솔잎금계국 '자그레브'

한택식물원에서 노란색의 빛깔을 자랑하는 식물

황금눈주목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의 색을 달리하는 식물

수국

임금님께 드렸던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어수리

정원으로의 여행 6

사진1. 런던에서 유명한 해럿Herrod백화점 근처에 있는 옥상정원으로 이슬람 정원을 꾸며 놓았다. 이곳은 본래 레스토랑이 있는 옥상의 정원으로 오픈데이를 정해 정원을 개방하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레스토랑에서 파티가 있을 때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정원의 스타일 III

## 이슬람 정원,이탈리아정원, 프랑스정원

우리나라의 정원이 자연스러운 정원이라면 유럽에서 유행을 했던 이슬람 정원, 이탈리아 정원, 프랑스 정원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 인위적인 공간이었다. 자연을 동경하여 만들었던 유럽의 정원들은 건축양식이 발달하면서 정원도 건축의 일부로 건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현대 시대에 주거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정원 역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옛 정원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퓨전으로 재 탄생 시키기도 한다. 나의 정원이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지면 좋을지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정원의 양식을 참고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1. 이슬람 정원

이슬람정원은 이슬람의 험악한 환경과 가혹한 기후 속에서 지상낙원인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재현시킨 공간이다. 물이 귀하게 여겨 사방으로 물길을 만드는 것과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녹음수(사이프러스, 대추야자, 세나르 등), 목마름을 잊게 해주는 과일이 나는 과실수(오렌지,석류,무화과,배,복숭아 등)를 심는 것이 특징이며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원 주위로 높은 담을 만든다. 이중에서도 특히 사방형으로 만들어진 수로 가운데 혹은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 연꽃모양으로 만들어진 분수나 샘이 있고 수로가 교차하는 사분원에 녹음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코란에 묘사된 지상낙원을 재현한 것이다. 따라서 코란에 묘사되고 있는 식물 수종인 백합, 튤립, 자스민 등의 화훼식물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다. 이슬람종교 특성상 우상숭배를 금기 시 했기 때문에 정원 외 건물이나 장식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별이나 꽃의 모습을 형상화 하여 문양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슬람 문자를 이용한 장식을 사용하였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 수 현
현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벌젼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2015년 첼시 플라워쇼에도 이슬람 정원이 한가지 소개가 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토심이 깊지 않은 옥상이나 깔끔한 정원을 원할 때 이 이슬람 정원의 스타일을 많이 이용한다. 꼭 종교가 같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디자인만 이용하는 어떨까? 모던한 현대식 건축물과 잘 어우러 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탈리아 정원

이탈리아라고 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사람들 성격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탈리아에 가서 느낀 점은 환경이 비슷해서 그렇지 않을까? 였다. 구릉지가 많고 물이 풍부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으로 멀리 산처럼 보이는 구릉지가 많은 편이다. 옛 귀족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별장을 만들었던 곳도 숲이 있고 경치가 좋은 이 구릉지 위였다. 당연히 정원도 이 구릉지 위에 만들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릉지에 계단식으로 터를 만들고 정원을 만드는 노단식정원이 발전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단식 정원은 물이 풍부해서 산꼭대기에서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계단 위에서 아래까지 분수를 만드는 물의 정원을 탄생시켰다. 이탈리아 정원이 발전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미술과 조각이 발전하던 르네상스 시대였다. 분수나 정원의 조각상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 영향 때문일 것이다.

### 3. 프랑스 정원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내자 프랑스도 이를 보고 자신들도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었지만 구릉지가 없는 평평한 평야만 있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노단식 정원 대신 만들어낸 정원은 바로 평면 기하학식 정원이었다. 대표적인 정원으로는 보르비콩트 그리고 베르사이유 정원이다. 평면에 화려하게 정원을 꾸미기 위해 회양목이나 주목을 이용해 화단 틀을 페르시안 카페트의 문양을 본떠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잔디 그대로를 놔두거나 꽃을 심어 색체감을 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은 매년 틀을 다듬어 주고 그 안에 심겨있는 꽃들은 새로 심어주며 관리를 해주어야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겨우 사계절이 뚜렷하여 여러 식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좋긴 하지만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 지상부가 살아있지 않아 볼품없어지는 단점도 있다. 그런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관목으로 프랑스식 정원처럼 화단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다면 겨울에도 볼거리가 있는 정원이 될 것 같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 종자 | 꽃묘 | 프러그 | 구근 | 조경용 수목 |
|---|---|---|---|---|
| 일반초화 종자<br>다년생초화 종자<br>야생화 종자<br>채소 종자 등 | 일반초화 꽃묘<br>다년생초화 꽃묘<br>야생화 꽃묘 등 | 일반초화 프러그<br>다년생초화 프러그<br>야생화 프러그<br>삽수 프러그 등 | 춘식구근<br>추식구근 등 | 연산홍<br>자산홍<br>남천 등 |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사진 우정아

# 산과 강이 만나고, 하늘이 반기는 정원

## 춘천 이광재, 이은선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이곳은 세덕산 자락과 북한강이 만나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음 땅을 구입할 때 길이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 다니며 조성했다는 10,000평(33,000,000㎡)의 방대한 정원은 강가에서 축대를 쌓고 조성한 주정원과 강을 끼고 조성된 산책길, 산으로 올라가는 올레길 등 크게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정원과 강가 산책로는 주로 주목과 철쭉, 소나무,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산수유 등과 배나무, 전라도 지방에서 공수해온 왕대추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의 과실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길가에는 옥잠화 돈나물, 붓꽃 등과 야생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지나는 이가 흥이 나게 한다. 주정원의 볼거리 중에 하나인 주목 토피어리들은 독수리, 매미, 거북이, 새, 의자, 용수철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주인장이 직접 다듬어서 완벽한 모양을 아니지만, 나름의 재미를 주며, 첨경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조성 초기부터 식재된 것이라 터널을 만들어 주는 울창함이 돋보인다.

그 중에 25년 된 단풍나무는 집 화분에서 기르던 분재 목을 옮겨 심어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데, 수형을 와이어로 잡아 가면서 실험적으로 키웠는데 가지의 모양이 특이하게 뻗어 정원 한쪽으로 쉼터가 되어 주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산으로 올라가는 올레길 초입에는 소나무가 군락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북향이라 소나무가 없던 이곳에 맞는 수종을 구해서 식재한 것이라 한다. 그 옆으로는 흰 민들레 군락지가 있는데, 흰 민들레는 파종으로는 개체 수를 늘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군락지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 산 중턱에 들어서면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는 요즘 보기 드물다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박쥐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주고 있어서, 가족끼리 살아가는 생활상을 동굴 안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고, 동굴 뒤쪽으로는 산의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좋은 정원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관리는 시기에 맞춰서 정지, 전정을 해 주고, 방제는 수질 보호 구역이라 하지 않으며, 비료도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소나무, 과실수는 가을 정지, 전정을 해주고 나머지 수종들은 봄에 정지, 전정을 해서 수형을 다듬고 통풍이 잘 되게 하여 병충해를 줄인다고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잡초 제거인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무성해지는 잡초를 손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제초기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정원에는 사슴도 살고 있는데, 아침이면 사슴을 방사해 자유롭게 산을 오르내리며 살 수 있게 하고, 밤이면 알아서 집을 찾아 돌아 온다고 한다.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려고
작년까지 전기도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인위적인 방제나 비료 없이도 산에서 나서
산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용하면 도리어
자가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물은 정확한 계절만 있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훼손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내정원의 Craft

# 깨진 항아리를 이용한 항아리 가드닝

우 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① 미시토로 배수층을 만든다.

② 배수층 사이에 깨진 조각을 넣어 식물을 심을 공간을 만든다.

③ 상토와 마사토를 1:1로 섞은 배합토 넣는다.

④ 포토를 돌려가면서 눌러 식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분리한다.

⑤ 은행목을 중심에 세우고 배합토로 반만 식재한다.

⑥ 깨진 조각 사이에 작은 조각을 빅아 흙이 흘러 내리지 않게 하고 바위솔을 식재한다.

⑦ 반대편에도 똑같이 부용을 식재한다.

⑧ 배합토로 빈 곳이 없이 식재한 후 화산석으로 데코레이션 해 준다.

**유의사항**

· 항아리의 깨진 부분은 날카로워 베일 수 있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굵은 사포로 문질러서 매끄럽게 해 주어야 한다.

**관리법**

· 물 관리는 배수구멍이 없기 때문에 배수층 높이를 참고하여 배수한다. 물 관리가 어렵다면 배수구멍을 뚫어 주면 되는데,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은박지 테이프를 · 앞면과 뒷면에 붙이고 못으로 배수구멍을 내면 된다. · 다육식물은 대부분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관리한다.
· 비료는 시중에서 파는 고체 비료를 사용설명서에 써 있는 기간 동안 일정량을 준다.
· 통풍은 병충해 방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내에 두었다면 하루에 2~3회 이상 해 주는 것이 좋다.

Material

# 와인 박스를 이용한 다육 모둠 심기

– 미니 다육 정원 –

마케다의 정원
스타일리스트 김세경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 재해 중 가드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강수량의 감소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연일 극심한 가뭄을 염려하는 뉴스 보도가 쏟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가정의 물 소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 잔디를 걷고 대신 선인장 심기를 권장하기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니더라도 세덤과 *Sedums* 선인장은 *Cactus* 야생화나 관엽 식물이 흉내 낼 수 없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올망졸망한 선인장을 작은 돌 화분에 심어 조르르 진열해 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육 식물들을 한 곳에 모둠 심기 한다면 다양한 다육 식물들을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여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호의 미니 야생화 정원에 이어 미니 다육 정원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 (1) 다육 전용 흙

선인장이나 세덤과 같은 다육 식물들은 그 원산지의 토양이 메마르고 유기질이 부족한 까닭에 관엽 식물 분갈이에 사용되는 일반 흙을 사용할 경우 과습, 과다 영양으로 인해 죽을 확률이 높다. 다육 식물에게 알맞은 흙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시중에서 판매하는 야생화 및 다육 전용 흙을 사용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제조 판매되는 다육 전용 흙은 다육이의 성장에 알맞도록 필요한 성분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 사용하기가 간편하다.

**2) 다육용 토양 직접 제조하기**
평소에 다육 식물을 많이 기르는 분이라면 피트모스가 많이 함유된 경량토와 가는 마사를 구입한 후 5:5로 섞어 사용한다. 여기에 숯을 10% 정도 섞어 경량토, 마사, 숯의 비율을 4:5:1로 섞어 준다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 (2) 다육 식물 심기

**1) 흙 채우기**
먼저 상자 바닥에 굵은 마사를 깔아 빠른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 다육 전용 흙을 넣는다. 다육 식물들을 심는 과정에서 식물과 식물 사이를 흙으로 채워준다.

**2) 다육 식물들의 배치**
다육 정원 디자인의 핵심은 각각의 다육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색감이다. 동글동글한 잎이 있는가 하면 삐죽한 잎도 있고, 회색빛이 도는 초록색부터, 연초록, 진초록, 분홍,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육 식물의 형태와 색감은 정말 다양하기 그지없다.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가든 상자 안에 다육 식물을 배치하는 일은 가든 디자이너의 몫이다.

**3) 흙 정리**
다육 식물들을 심는 과정에서 겹겹의 잎 속으로 마사와 흙이 흘러들어가는 일은 매우 흔하다. 그때는 수채화용 가는 붓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주고 마사는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해주면 깔끔한 미니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4) 다육 식물 사이를 이끼로 채우기**
청이끼와 달리 생이끼는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초록색과 갈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다육 정원의 좋은 부자재가 될 수 있다. 다육 식물들을 모두 배치한 후에 핀셋을 이용하여 사이사이에 생이끼를 심어보자. 훨씬 내추럴해진 다육 정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 틸란드시아로 장식하기**
생이끼를 심은 후 몇 가닥의 틸란드시아를 두세 군데에 꽂아주면 다육 정원은 더욱 입체감을 가질 수 있다. 선이 가는 틸란드시아는 볼륨이 있는 다른 다육 식물들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며 장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3) 다육 정원 관리하기

야생화 정원에 비해 다육 정원은 관리하기가 매우 쉽다. 한 달에 두 번 흠뻑 물을 준 후 그늘에서 충분히 배수를 하고 원래 두었던 위치에 두면 끝. 여러 개 혹은 수십 개의 다육 화분에 일일이 물을 주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습기가 높은 장마철이나 식물들의 성장이 멈추는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는 것이 다육 식물들의 생육에 이롭다.

# RECYCLE MINI GARDEN 미니정원

어린시절 명절 때면 적어도 신발은 새 신으로 신상품을 주시던 부모님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시절의 운동화는 빨강바탕에 공주가 그려진 특상품이 아니면 친구에게 자랑거리도 안되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봄에 정원 일을 하면 진흙에 신발이 푹푹 빠질것을 대비하여 마련한 운동화. 의외로 키 높이 까지 성큼 크게 마추어 주는 마력도 있었으나 작업후 빨간 진흙을 닦아내고 마르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신으려니 앞이 이미 다해졌다. 정원의 식물을 이용하여 6.25를 맞으며 어려웠던 한국의 시절을 생각하며, 절약 근검하여 남북이 평화통일의 날도 기대한다.

## 헌신발로 DIY 미니 정원만들기

신발을 깨끗이 닦아 준비하며, 식물의 소재는 실내. 실외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준비한다.
신발류 뿐이 아니고, 오래된 가방, 박스, 금이간 화분 붙인것, 큰 그릇 종류 등등 찾아보면 모두 컨터이너 화분 container 의 용도로 재 활용이 가능하고, 식물로 덮어주면 앤틱 느낌과 추억이 남아 있는 매우 독창적인 자기만의 미니 정원이 여름철을 시원하게 맞이 할 것이다.

준비 1. 토양 , 실내.외를 고려한 식물 , 모종삽, 가위 , 비닐
식재이용 : 세덤류, 아이비 , 아주가

준비된 토양은 신발 내부에 비닐 봉투를 구멍을 뚫어 넣고 흙을 채워준다

준비된 식물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나씩 채워간다

식물을 심고 난후 물을 주어 정리한다

완성된 미니 신발 정원

다양한 신발 recycle 정원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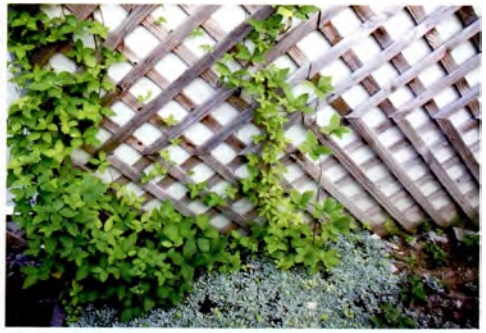
# 정원과 발걸음 멈추어, 쉼과 사색하며 새롭게 ...

나의 양평에서의 삶은 전원생활을 동경해서가 아니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대접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좋고, 주택에 살려면
정원이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의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나의 정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시라도 왠지 분주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 안에서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
그래서 나의 정원은 S(Stop).R(Rest).T(Think).CC(Clean Country) SRTCC이다.

정원사 최성주 / 경기 양평 왕창리

최성주 정원사가 즐겨 찾는 자리이며 식물들과 교감하는 SRTCC 정원사의 최고의 자리.

푸른 털의김 , 톱풀 파스텔



정원 뒷길로 이어가는 통로의 벽을 이용하여 벽면에 마름모꼴 격자나무를 이용하여 덩굴식물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 초롱과식물을 심어 아름다운 벽면 정원을 연출한 곳이다.

## 자연이 나에게 무언의 교훈을 가르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

땅에 내려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랜 고층 아파트 살이로 다 잊고 생활했었다. 어릴 때 마당에 채송화와 봉숭아, 장미 들이 있었다는 기억만 남아 있어서 땅에 내려와 사는 것을 연습하려고 작은 뜰이 딸린 1층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큰 나무들 그늘에 묻힌 작은 뜰이었는데 단숨 3그루를 사다 심고는 다 죽게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는 하염없이 땅을 들여다보던 것이 내 정원 가꾸기의 시작이었다. 결국 싹은 나지 않았지만 자연이 가르치는 교훈을 얻었다. ( 빛, 공기 , 물이 식물의 성장 요소인 것을 )
몇 년 만에 식물에게는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잡초가 주인이던 양평에 정원을 만들게 되었다. 당장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싶다는 조급함에 먼저 잔디를 깔고 나무는 봄에 심으라는 조언들을 귓등으로 던지고 11월에 나무들을 심었다. 당연 보온도 할 줄 몰랐다. 그 다음해 봄은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나무도 물을 줘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나무는 당연히 뿌리가 알아서 물을 빨아 마시리라 생각했으니… 여러 나무들이 추위와 목마름에 죽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

장미

샤스타데이지 씨를 뿌려놓고 싹이 진짜 나는지 보려고 땅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고, 뽑아 던져놓은 잡초들이 며칠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새삼스럽다.

나의 나무들과 꽃들이 무지한 주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되었을지. 4번째 봄을 이곳에서 맞이했다. 그 동안 내가 배운 것은 생명을 키우는데 준비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흙을 준비하고, 심은 식물이 자리 잡도록 보살피고 기다리고, 편하게 살도록 돌봐주고. 이제 정원에서 나의 역할은 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 잘 어울려 살도록 돕는 것이다. 가지를 치면서 얘기해 준다. 너네는 살 닿는거 싫어하잖아, 바람 안 통하면 병 나잖아 하고. 잡초를 뽑으면서 얘기해 준다. 꽃 펴서 마구 퍼지면 안되지, 여기는 너네 자리가 아니지 하고. 야단도 친다. 튼튼하게 잘 있지 못하면 여기 못 산다고.

인동

자작나무 & 삼각모양의 주목나무로 사계절 질감과 색상을 고려하였고 붉은 덩굴장미의 뒷배경이 정원의 리듬을 주며, 아래화단에는 계절별로 색상을 맞추어 심으며 흰 줄무늬의 염주그라스의 질감도 화려하다

물싸리꽃(*Potentillia*)

## 정원의 공간은 모두에게 융합하는 이야기 공간

정원을 만드는 나의 목적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했다. (조용히 책을 읽기에 좋은 곳, 여럿이 식사 할 수 있는 곳, 차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곳 등) 집을 지으면서 처음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정해졌다. 수맥이 잡혀서 우물을 파게 된 곳에는 파고라 Pagora 가 세워졌고, 물이 많아서 질퍽거리는 곳은 단을 높여서 차 마실 장소가 생겨났다. 자연히 부엌 가까운 곳이 식사 장소가 되고. 집 짓고 남은 자재들을 이용해서 의자도 만들고 fire place도 만들고 평상도 만들고…. 뜻밖의 디자인들이 즐거움을 준다.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이 갖게 되는 은밀한 즐거움이라고 할지 추억이라고 할지.

## 정원 식재의 중요성은 사계절을 고려하여

사계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록수와 활엽수를 분배하고, 꽃이 피는 시기를 분배하여 심었다. 또 함께 피는 꽃들의 색이 다양하도록 식재하였다. 내가 식재할 때 또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의 모습이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이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기에 남편과 내가 각자 갖고 있던 어릴 적의 추억과 지식에 따라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었다. 이제는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하다. 조팝과 블루베리 등의 관목은 멀리 이사시키고 꽃밭을 꾸미려 한다. 가을 정원도 아름답도록. 너무 기가 센 종목도 교체해야 하고 등등. 세월이 가면서 나무가 자라면 정원의 생태는 변화하리라 생각한다.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이 되리라 기대한다. 입던 옷이 더 편하고 쓰던 가구가 더 편한 것처럼 세월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더해지면서 더 쉴만한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 정원은 자연 속 모든 공동체의 화합과 소통하는 곳

정원은 단순히 아름답게 핀 꽃과 무성한 나무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곤충과 벌레, 새, 풀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너무도 질서를 지키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생각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류의 주인은 나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정원을 통해 자연과 같은 겸손과 양보와 공존의 미덕을 배운다면 세상사가 조금 덜 시끄럽지 않을까 싶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생각하며 시야가 더 높고 넓어진다면 작은 다툼과 욕심과 갈등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을까 싶다.
여러 사람들이 나의 정원에 와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닫힌 대문에 익숙해서인지 문을 열어놔도 선뜻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나의 정원을 열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갖고 위로 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다들 정원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기뻐하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다 관리하냐고 걱정한다. 나는 매일 조금씩 열심히 한다고 대답한다. 정원을 돌보는 일은 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하고 힘도 든다. 그러나 수고 안하고 얻어지는 것이 있던가? 눈과 귀와 코로 거둘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기뻐하며 일하고,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대로 열심을 낸다.

Gardenin Design Point

## 정원의 요소와 장식의 조화

### 대문 & 펜스 & 등 & 입구 바닥의 소재

정원은 주변의 자재 선정에도 자연과 동화되는 질감의 선정도 매우중요하다. 입구에서 대문, 돌담, 그리고 펜스 외 바닥의 조화가 자연과 하나 되는 색채 선정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사진은 사각 모양의 딱딱함을 둥근 등과 입구 바닥의 색상과 무늬가 낮, 밤에도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 안전과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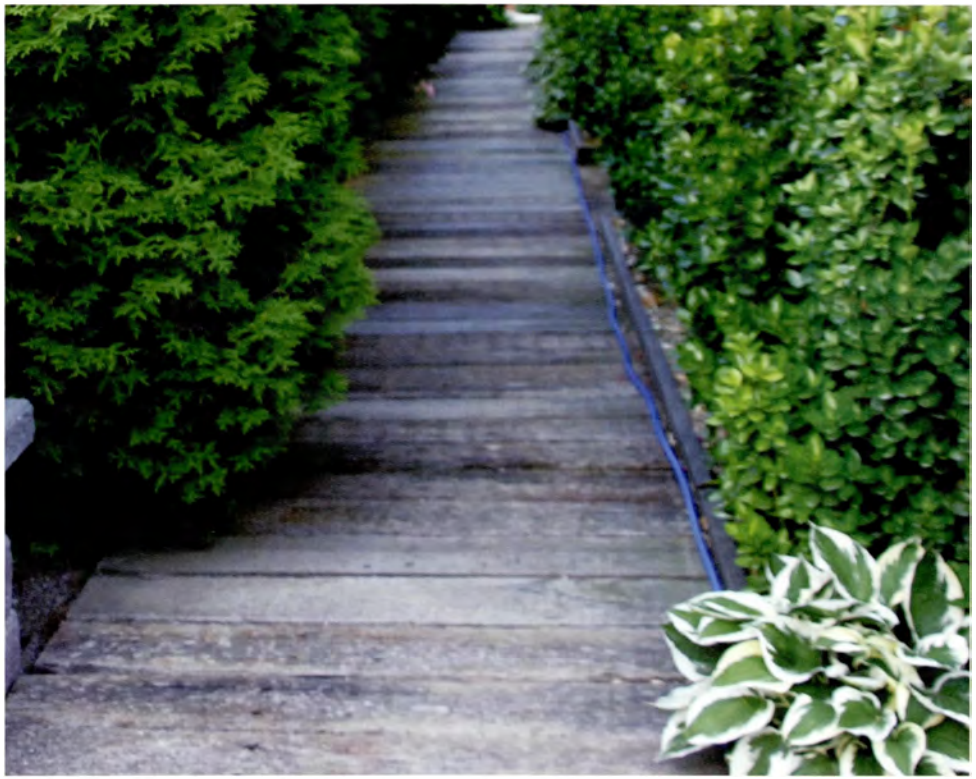
펜스는 비, 바람의 자연의 힘에도 안전과 디자인이 함께 하는 곳. 현관문 철재와 나무의 질감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초기 비용이 높지만 철판을 이용한 담의 구조네 나무판을 안밖으로 만든 중요한 담이며 자연스럽게 연출된 덩굴장미는 정원내부와 외부에서도 모두의 시선이 가는 곳이다.

### 주차장바닥 & 입구

정원의 입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대부분 주차장의 용도나 처음 정원의 발을 딛는 곳으로 시멘트나 회색의 자갈돌, 잔디등으로 많이 사용하나 정원의 디자인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면 입구의 첫발자국 공간도 사로잡을 수 있다.

뒷간이나 공간에 쌓아두는 겨울철 장작나무도 정원에서 보이는 좋은 질감이다.

정원에 가구를 준비한 의자와 테이블의 재료로 비바람에도 썩지 않고 또한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지 않는 무게, 재질 & 질감, 디자인과 색상을 늘 고려해야 한다.



오래된 철도목 이용은 뒷길을 걷고 싶은 정원 길로 만들주며, 양옆으로 화단에 식재를 꾸며 발길이 오고가는 곳이다. 보통 정원의 뒷마무리가 되지 않아 어두운 밤이나 필요한 것을 찾으려 할 때 사고도 발생하므로 안전 문제 차원에서도 뒷길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덩굴식물이나 음지 지피 식물도 심으면 또 다른 느낌의 정원 공간 연출을 만날 수 있다.

GARDEN & BOOK

# 마음을 가꾸는 정원

저자 :자키아 머레이

"정원은 마음을 살피고 돌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땅을 밟고, 흙을 만지는 일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특효약이다.
정원에 있으면 어떻게 사는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정원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

– 틱낫한 스님의'추천의 글'중에서 –

속도와 경쟁에 짓눌리며 팍팍한 도시의 일상을 이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휴식과 재충전이다. 일을 놓은 채 잠시 한 호흡 쉬어가면서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 말이다. 그래서인지 '힐링'과 '명상'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를 틀고 두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명상체험은 그런 정적인 수행에 한정되지만은 않는다.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아주 단순한 움직임에서부터 격렬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잊은 채 완전히 몰입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활동 후에는 몸은 피로할지언정 정신은 엄청난 이완과 해방을 경험하는데, 이것 또한 완전한 '몰아沒我'상태의 명상체험이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정적인 명상에 비하면 초심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동적인 명상인데, 걷기명상이나 춤명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책 《마음을 가꾸는 정원》은 정원 가꾸기를 명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나는 정원을 돌보고, 정원은 나를 돌본다!"
## 정원사이자 선禪 수행가인 저자가 안내하는'정원 가꾸기 명상'

저자 자키아 로렌 머레이는 조경사이자, 틱낫한 스님이 창설한 상즉종相卽宗(Order of Interbeing)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선禪과 명상을 수행했으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신학 전공자이기도 하다. 저자의 이런 이력 아래, 고된 노동일 수도 있는 정원 일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가꾸는 명상 수행으로 거듭났다. 그녀 자신이 직업인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온 정원 일을 명상과 선 수행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경험을 이 책에서 정갈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낸다. 마치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같다.

눈부신 문명의 발달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지구 끝까지 소식을 전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소통하지 못하며, 자신의 깊은 내면에는 가닿지 못한다. 얼어붙은 땅처럼 차가운 기술의 발전과 바쁜 일상의 감옥에 갇혀 지낼 뿐이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면서 느리지만 의식적으로 정원 일을 하다 보면 책상 밑에 뱀처럼 뒤엉킨 전선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든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던 어린 아이의 감각을 되찾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잡초를 뽑고, 흙을 준비하고, 심고, 물주고, 가지치고, 수확하며 정원을 가꾸는 것은 야생과 문명 사이에 자신을 두는 일이다. 정원을 가꿀 때는 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지금 이 순간에 뿌리내리게 된다. 마음을 살피면서 정원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쓰는 삽과 나의 걸음이나 손길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외부로만 향해 있던 마음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가닿고, 이리저리 얽힌 생각들도 스르르 풀려 가지런해진다.

이렇듯 정원 일을 하면서 자연을 섬세하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확고히 머물게 되고, 우리의 내면은 더 크게 열리고 더 깊이 확장된다. 정원 일을 선 수행과 결합시키면서 저자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현재의 순간을 사는 울림 깊은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 우리를 '온전한 나'로 이끄는 정원의 지혜!
##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풀을 뽑으며 참된 나를 오롯이 꽃피운다.

### - 한 그루 나무에서 배우는 '그저 존재하기'

자연은 존재하기의 달인이다. 자연은 그저 거대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안다.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늘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들, 곧고 늠름하게 서 있는 둥치, 구불구불 땅속 깊이 흐르는 뿌리를 바라보면서 나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정원에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한다. 나무에는 고대의 바람과 바다에서 온 비와 수년간의 햇빛이 담겨 있다. 그 심오한 존재함은 고요와 정적으로 다가온다. 나무처럼 가만히 서서 갖가지 생각들은 정원 밖으로 흘려보내고, 나는 오직 나 자신으로 돌아간다.

### - 잡초 없애기로 배우는 '내 마음 들여다보기'

정원에서 잡초로 뒤얽힌 곳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살피고 비우는 중요한 명상법이 된다. 마음을 닫은 채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이 생긴다.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정원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주 모른 체했던 내 마음속의 뒤얽힌 구석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 뿌리가 널리 퍼져 있는지, 밑으로 깊이 뻗어 있는지 살펴본다. 잡초는 내가 삶의 어느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 - 가지치기에서 배우는 '익숙한 것을 버리는 용기'

가지치기는 과거의 것을 없애서 새로운 것이 자라고 꽃 피울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미지의 새로운 것을 위해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현실성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데도 자꾸 떠오르는 생각, 이야기, 습관화된 행동은 없는가? 나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오랜 동안 조금씩 조금씩 키워온 낡은 가지들이다. 정원의 낡은 가지들을 잘라내며 내 안에 오래도록 들러붙어 있던 습관도 잘라낸다. 그때 내 존재에 투명함, 평화, 차분함 같은 새로운 싹이 자라나 뿌리내릴 공간이 열린다.

**| 지은이 |**
**자키아 로렌 머레이**
**ZACHIAH LAURANN MURRAY**
미국 조경사 협회의 정회원이자 공인받은 마사지 치료사이다. 현재 명성계몽센터(CSE) 소속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요가 강좌와 봉사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틱낫한 스님이 창설한 상즉종相卽宗(Order of Interbeing)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선禪과 명상을 수행해 왔다. 또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비폭력 무술인 합기도를 수련하는 무도인武道人이기도 하다. 2급 갈색 띠 소지자로서 캘리포니아 주 산타크루즈의 합기도 훈련원에서 규칙적으로 수련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녀는 산타크루즈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는데, 야생 공작이 자유로이 노닐다가 지붕 위의 삼나무에 앉아 잠을 자고 가기도 하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한다.

**| 그린이 |**
**제이슨 디앤토니스**
**JASON DEANTONIS**
조각가이자 시각 예술가.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졌으며, 여러 화랑과 미술 서적, 교과서, 소설, 아동서 등에서 그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최근에 패럴랙스 프레스사와 함께 작업한 책으로 《공간 만들기 – 집에서 홀로 하는 명상Making Space : Creating a Home Meditation Practice》(틱낫한 著), 《하업경Little Pilgrim》(고은 著)이 있다. www.jasondeantonis.com에서 그의 작품을 더 만나볼 수 있다.

**| 옮긴이 |**
**이 석 연**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입시학원에서 한동안 대입 논술과 영어를 가르쳤다.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며 철학과 소설 등 인문 분야 번역에 전념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유럽신화》 《모든 것이 돌아오는 곳》 《헝거게임으로 철학하기》 등이 있다.

**과정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 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5년 8월 26일 ~ 11월 25일** (예정)
* 하반기 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 강 료: 25만원** (총액 65만원 중 경기도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자부담 25만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
-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
-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
-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

고추모종

| 영역 및 강의 과목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
| 제1강 8월 19일 | 개강식 | 정원의 이해 | | |
| 제2강 8월 26일 | 채소정원의 조성 | | | |
| 제3강 9월 2일 | 수목의 종류와 특성 | | | |
| 제4강 9월 9일 |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 | | | |
| 제5강 9월 16일 | 정원계획과 설계 | | | |
| 제6강 9월 23일 | 실외정원 조성 | | | |
| 제7강 9월 30일 | 식재 및 관수 | | | |
| 제8강 10월 7일 | 정원답사 | | | |
| 제9강 10월 14일 | 수목의 전지전정 | | | |
| 제10강 10월 21일 | 식물의 비배 및 월동관리 | | | |
| 제11강 10월 28일 | 식물의 환경과 생리 | | | |
| 제12강 11월 4일 | 병해충 관리 | | | |
| 제13강 11월 11일 | 실내정원 조성 | | | |
| 제14강 11월 18일 | 식물번식 | | | 수료식 |

가든조아　문의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 10% ~20% OFF 인하

##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 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 행 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 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 집 인 이 명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 화 031-712-7009
팩 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견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August 8월 원예/정원관리 필수상품
관수자재 및 멀칭, 네트류

### 갈대 발,가리개,울타리
껍질을 벗겨낸 천연 갈대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상품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연출

### 알라스카플러스
채소나 과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욱 좋게한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으깨어 만든 어류 엑기스로 동물성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는 친환경 비료.

### 소형양수기
전기가 필요없는 가솔린 엔진 양수기로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함 엔진시동이 쉽도록 설계되었다. 농지 및 소규모 농사는 물론 가뭄철은 물론, 다용도로 활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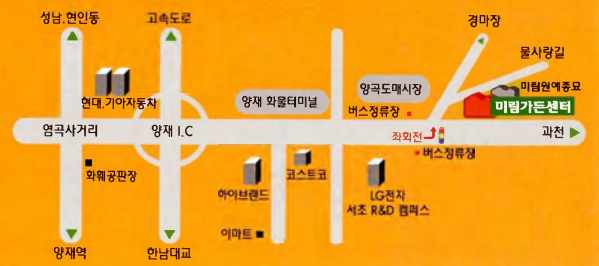
### 우드칩
멀칭한 곳에는 잡초가 발생하지 않는다. 토양표면의 적정한 습도유지(땅이 건조해지는것을 막는다) 보온효과로 수목의 동해피해가 경감된다. 토양표도 유실 방지하며 보기에도 좋아 미관상으로 좋다.

### 동원스프링클러
넓은 정원 관수를 위한 스프링 클러.

### 코코칩
잡초방지용 멀칭, 정원이나 산책로 등의 깔개 등 으로 사용한다. 피트모스, 코코피트, 상토와 섞어 배수를 좋게 할때 사용한다. 화분식물 식재시 바닥에 깔아준다.

### 쿨링미스트
전기가 필요없고 수돗물만을 이용한 냉방으로 여름철 전력대란을 피해갈 수 있는 확실한 냉방 대안 시스템! 간단한 DIY(조립) 키트로 장소에 맞게 설치 가능.
설치와 철거가 간단~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미림가든센터 e shop 조이가든
검색창에 '조이가든' ▼ 검색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 코레우리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 육성!**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정원과 유럽,
호주, 미국의 정원까지
우리꽃연구소란 개발자의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우리드림 오렌지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